

4
2021

VOL. 298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ARE YOU READY FOR TOMORROW

?

Korea Desk 021-2078-5877

<http://www.kiwoom.co.id>

KIWOOM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내일에 투자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가 함께 합니다



SCAN THE QR CODE TO FOLLOW US ON SOCIAL MEDIA AND DOWNLOAD OUR KIWOOM HERO

OK OTORITAS
JASA
KEUANGAN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member of
WFE OF ECONOMIA

kpei

ksei
Indonesi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Treasury Tower 27F, District 8 Kawasan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12190
T. 021-5010-5800 | Korea Desk 021-2078-5877

For a Remarkable Life

Meet the all-new PALISADE



2열 캡틴시트 / 킬링 나파가죽 시트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전자식 AWD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 험로 주행 모드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reddot award 2019
winner car design





PT. BOSUNG INDONESIA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PT. TAEWON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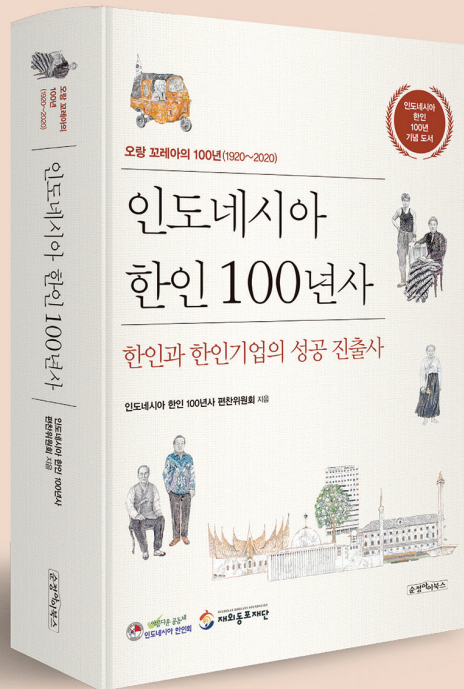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 8984 1133/1134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책

★인도네시아 한인과 한인기업의 역사와 성공 이야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양장본 · 판형 163×235 쪽수 512

적도에서 펼쳐진 한인들의 치열한 삶과 도전의 역사! 열정 그리고 꿈!



-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개척 도전사와 '산업별 한인기업 50년사(史)' 총망라
- ★ '오랑 꼬레아'가 인도네시아 땅에 새긴 특별한 삶의 현장 보고서

순정아이북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께는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책자 요청시 무료로 드립니다.
연락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 1960 308 (지역에 따라 배송비 개인부담)



표지: 김상균 (시인, 사진가, 여행가)

전남 순천시 승주읍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contents

2021. 4. 통권 298호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16 - 단편 영화 만들기 <황유경>
- 0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소비 행동과 대응
- 10 이코노미 인사이드 - 현실이 된 매직 카펫 라이드 <황준규>
- 12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40 - 반란의 시대
- 15 102주년 삼일절 기념식
- 16 격리 숙소에도 봄은 온다 <홍석영>
- 20 월간 뉴스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 24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출판 기념 학술대회
- 26 두 개의 시선 - 복짓는 날, 상짓 <헬렌>
- 29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32 나 바 수 <민선희>
- 36 자카르타 맛집탐방 - Woodfire Burger <주윤지>
- 38 만화스토리작가의 세계 - 배동선 편
- 42 JKS 소식
- 43 KIYA, OKTA 구호물품 전달
이영미작가<샘터상>, <제주기독신춘문예> 수상
- 44 여행은 언제나 옳다 - 김영국 편
- 48 삼죽오와 가루다 <유은규>
- 51 WE ARE STARS <편집국>
- 52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그리고 청동대포 Si Jagur <조은아>
- 56 행복에세이 - 어머니의 꽃, 군자란 <김재구>
- 59 미얀마 민주화의 꽃이 된 치알신을 추모하며 <김현영>
- 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296) <이승민>
- 62 힘들지만 아름다운 인생 <노성완>
- 66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4 2021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김상균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람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편 영화:] 만들기

내 손안에 영화세상

뚝딱!

아이들과 함께 영어소설
〈HATCHET〉을 재해석해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VIVA VIDEO 어플리케이션으로
편집하여 만든 단편영화.

모든 일들이 손바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시대에 핸드폰만 있으면, 차 안에서 짧은 시간 한 편 써서 퍼뜨릴 수 있고, 멋진 사진가가 되어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단편 영화 한 편 만들어 나름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작고, 카메라 화질이나 성능은 훨씬 뛰어난 스마트 폰이 보편화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멋진 영상 한 편 만드는 e-편한 세상. 편집과 특수효과도 영상을 찍으며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음악은 물론 자막까지도 손쉽게 덧붙일 수 있으며, 영상 파일을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옮기며 작업할 필요가 없어 손 안의 작은 스마트폰으로 짧은 스토리가 담긴 영화를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한국영화가 전 세계 영화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고 바로 편집하는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하여 나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거나 평소 일상을 찍어 한 편의 짧은 V-LOG를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소비행동과 대응’



논설위원 신성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늘었다. 자카르타의 경우 쇼핑몰은 한산해지고 하늘이 보이는 전통시장은 붐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에 맞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핫플레이스는 지난 2월 개장한 백화점 ‘더현대서울’이다. 더현대서울은 도심 속 자연주의를 콘셉트로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 개념을 적용한 국내 첫 자연 친화형 미래 백화점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모든 층에서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1층에는 12m 높이의 인공폭포가 조성된 워터폴 가든이 있다. 5층을 비롯한 매장 곳곳에는 총 1만 1,240평방미터 규모의 실내 조경 공간을 꾸며서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을 느끼며 오래 머물 수 있게 했다. 매장을 최대한 촘촘히 배열해 백화점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기존 전략과는 반대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했다.

서울 진관동에 있는 한 카페는 식사 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의 간격이 일반적인 카페보다 훨씬 넓고, 통유리창을 통해 북한산의 웅장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카페의 식사와 음료의 가격은 일반적인 카페와 비교해 1.5배 정도 비싸지만, 넓고 여유 있는 카페에서 고급 음식을 즐기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경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층이 주고객이다. 요즘 젊은 층의 유행어 중 하나가 “플렉스 했어”라는 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명품을 사는 등 소비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소비행동을 ‘리테일 테라피’라고 부른다. 소비를 통해 위안을 얻고 힐링을 추구한다.

케어(Anxiety CARE) 소비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 경기침체의 두려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울감(코로나 블루)을 줄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반응이다. 위생 제품을 구매하며 안심하기도 하고, 작지만 행복을 느끼게 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덜어주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동이다.

‘에고이즘(Egoism)’ 소비는 타인과 대면 시간이 줄고,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기피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 소비행동이다. 또한 ‘건강, 안전, 생명, 환경, 행복, 가족’ 등 본원적 가치(Essential Value)를 중시한다.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 세심하게 고르고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한 제품을 소비하며 만족을 느낀다.

‘홈코노미(Home+Economy)’ 소비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집 안에서 여가 생활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게임, 영화·영상미디어, 음악·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즐긴다. 운동도 유튜브 등의 화면을 보고 집에서 하면서 홈트레이닝(홈트)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과거와 달리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구와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었고, 퍼스널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좋은 성능의 제품을 찾게 됐다. 패션과 화장은 기능성에 더해 편안함을 더 추구하게 됐다.

포스트코로나 시장에서 MZ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소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MZ 세대는 먹방, 라이브커머스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체험메뉴를 구매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메뉴 콜라베레이션에 열광하며 평범한 메뉴에 이색 식재료를 더해 새로운 맛을 추구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 주기가 짧아 꾸준한 연구개발과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라 대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증대되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소비하는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됐다.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매장을 꺼리고 누군가와 접촉을 기피하면서 무인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추세도 무인매장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자카르타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식당 내 테이블에서 모니터로 주문하면 미니얼차 모양의 트레이로 주문한 메뉴를 자동으로 배달해주는 스시음식점이 영업하고 있다. 드론의 규제가 덜한 중국에서는 커피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개장한 무인 식료품점 아마존고(Amazon Go)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없고 계산대도 없다. 그냥 매장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집어 나오면 각종 센서와 카메라가 개인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전 등록된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결제한다. 현금 사용도 줄고 있다. 모바일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는 현금보다 알리페이 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걸인들도 깡통 대신 QR코드를 들고 구걸을 할 정도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유통산업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 온라인으로는 쉽게 구입하지 않았던 품목의 구매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과거 경제 위기와 다른 측면 중 하나는 근본적 소비자 행동(Behavior)의 변화인 만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 보인다. 소비자도 기업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라는 파도를 탈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리스토어(Re:Store) 황지영 지음 △리테일의 미래 황지영 지음 △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 변화는? KMPG



현실이 된 매직 카펫 라이드

- 산업생태계의 "Whole New World" 두번째 이야기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지난달 한국의 대표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상장일의 종가기준 시가총액은 무려 100조를 뛰어넘었는데 이는 국내상장사와 비교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작년 초 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의 해외매각에 대해 국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즈음 매각 금액으로 거론되던 5조원의 기업가치를 두고 필자는 이마트의 시가총액(당시 약 3조5천억원)과 비교한 적이 있다. 배달 오토바이 한대 보유하지 않은 배달앱의 기업가치가 연매출 20조원이 넘고 부동산만 10조원 이상 보유한 국내 1위 유통업체를 넘어서는 것을 두고 ‘IT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알라딘이 매직 카펫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처럼 영화 ‘알라딘’의 OST였던 ‘Whole New World’에 비유했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 1조의 유니콘 기업에서 몇 년 만에 기업가치 10조의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한 인도네시아의 고책을 언급한 기억이 있다. 그 후 1년이라는 코로나 세상을 거치는 동안 눈여겨만 보다 금번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을 계기로 더욱 주목하게 된 기업이 있다. 바로 축구스타 호날두의 우스꽝스러운 광고로 이슈가 되었던 이커머스 업체 ‘쇼피(Shopee)’다. 사실 2018년 동남아 K-pop 열풍의 주역 중 하나였던 블랙핑크를 자카르타로 초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2년 남짓 기간 동안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며 이제 명

실상부한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커머스(Shopee) 및 핀테크 사업부문(SeaMoney)과 온라인 게임(Garena) 사업부문을 보유한 해당기업, 씨 리미티드(SEA Limited)의 뉴욕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은 얼마전 165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쿠팡의 기업가치가 어느정도 수궁이 되었다)

쇼피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 IT 기업인 ‘씨 리미티드’의 이커머스 브랜드로 회사는 2017년 10월 동남아시아 유니콘 기업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하였다. 동남아시아는 6억 5천만명의 인구와 함께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경제률을 보유한 역동적인 시장이다. 이렇듯 누구라도 공략하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지형만큼이나 정치, 문화, 종교적인 문제들이 얹히고 설켜있는 바, 공략이 쉽지 않은 않기 때문에 저임금과 낮은 물가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는 장점이 있으나 동남아 시장 그자체를 타깃으로한 진출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쇼피는 현지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출신 경영진들이 지역적 특성 및 금융시장환경을 고려한 결제 시스템과 마케팅 방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에 집중하며, 짧은 기간에 점유율과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성공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늦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 기업들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역전하게 되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모두 트래픽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만해도 2009년에 설립된 인니 대표 유니콘 기업 ‘토코페디아’와 함께, 2010년에 설립돼 국내 굴지의 IT기업과 금융사가 투자한 ‘부칼라팍’, 그리고 201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2016년 알리바바에 인수된 ‘라자다’ 등 걸출한 선발주자들이 2019년도 초반까지 쇼피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피는 인니에서 작년 상반기부터 트래픽(방문객 수)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남아의 핀테크 간편 결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인니에서는 최근 e-월렛 결제액 기준으로 기존 시장 과점업체였던 OVO와 고페이를 앞서기도 했다.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바일 침투율이 높고,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이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모든 결제시스템을 바꾸어 버리기전의 중국 금융시장과 유사한 만큼 이커머스에 이어 간편 결제 시장까지 석권한다면 중국의 엔트그룹과 같은 공

룡기업으로서의 성장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 부서에서 Private Equity(사모펀드) 또는 일반기업이 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기업인수자금을 조달해주는 업무를 담당 한 적이 있다.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공여인 만큼 해당 기업의 성장성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치 평가가 업무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 물론 기업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거두어 들일 수익(현금) 및 보유한 순자산가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기존의 기업가치 산정방식이 웬지 오히려 해묵어 보일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장외거래 주식가치가 국내 4대 금융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을 웃돌았던 적이 있다. 당시 ‘카카오뱅크의 수익이 필자가 적을 두고 있는 은행에서는 일부에 불과한 베트남 현지법의 손익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두고 같이 근무하는 직장선배와 서로 허탈한 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그러고는 바로 ‘지금의 넌센스가 어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공감하며 이윽고 어리둥절한 웃음은 씩씩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거론한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얼마 전 발표한 저서 ‘위대한 리셋(Great Reset)’에서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다시 리셋’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찌면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요정 지니가 만들어낸 마법이자 신기루가 아니라 실체할 수도 있다.’ 고정관념의 리셋이야 말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진정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반란의 시대



1958년 3월 2일 버르메스타 선언을 낭독하는 펜제 수무알 중령

지난 호에 이어

이 전투에 참전해 중대를 지휘했던 베니 무르다니(훗날 육군대장, 전군사령관 역임)는 당시 아흐맛 야니 대령이 훌륭한 수완을 발휘해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던 장면들을 증언했다. 야니는 PRRI 병사들이 떠빙 비행장에서 투항해 나오자 그들을 체포하지 않고 전향자로 받아들여 즉시 정부군과 나란히 공항경비를 서도록 해 대인배 인증을 했고 빠당에 머무는 동안 암살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현지 회교사원의 금요일 솔랏 줌앗 기도회에 충실히 참석했다고 한다.

줄키펠리 루비스는 PRRI 반란군이 쉽게 패한 이유를 반란군 지휘관들의 부패에서 찾았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PRRI가 미국 등에서 구매하거나 원조받은 막대한 군수물자들은 어디론가 빼돌려져 충분치 않은 상태였고 지휘관들은 정부군이 공격해 오자 부하들을 놔두고 도망가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나수티온에게 의심받았던 루비스도 PRRI와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었다. 1955년 밤방수경이 육군사령관을 사퇴했을 때 부사령관이던 그가 육군사령관 자리를 물려받았으나 그 시기는 한 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루비스가 그동안 줄곧 정보계통에 몸담아 와 육군사령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잡음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불과 한달 반만에 육군사령관 자리를 밤방 우또요 소장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그 바람에 루비스는 육군사령관 ‘대리’ 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소장으로 진급되었어야 할 계급도 대령에 머물렀다. 몽니를 부릴만큼 우또요 소장의 육군사령관 취임에 배가 아팠을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보통 육군사령관 보직 후엔 전군사령관으로의 진급 또는 전역 등 선택지가 한정되지만 그는 PRRI 반란시기를 포함하여 1958년까지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한 후 전역했다. 그는 오래전 1946

년 7월 3일 투쟁연대의 쿠데타에 연루된 적이 있었지만 사면받았고 그 이후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두 마음을 품은 적은 없었다.

PRRI가 패한 후 서부 수마트라 사람들은 극한의 폭력과 공포를 경험했다. 자바에서 온 군대가 그들 삶의 모든 것을 장악했고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청년자경단 OPR이 현지치안에 나서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PRRI가 반공성격을 극명히 드러내면서 공산당을 꺾박한 것에 대해 이제 그 복수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OPR은 PRRI에게 저항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군 성격이었는데 정부군은 OPR을 도시치안과 방어에 동원했고 OPR이 사전에 ‘해방’ 시킨 지역에 정부군이 진주해 ‘독립’ 시키는 식으로도 협력이 이루어졌다. OPR 소속 6천 명 안팎의 병력은 크게 치안과 재건 두 기능으로 나뉘어져 투입되었지만 PRRI의 추종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 취조하는 권한도 주어졌다. 뚜껑뚫죽(가리키는 사람)이란 별명이 붙기도 한 이유는 OPR 대원들은 매우 오만한 태도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키는대로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누구는 감옥에 처넣고 누구는 살해하는 막무가내 방식으로 전횡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이 자바출신인 정부군 군인들에게 수마트라 토박이인 OPR 대원들은 고집스럽게도 서툰 인도네시아 표준어를 썼는데 그런 어색한 발음과 장난기 다분한 억양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다는 부분이 사뭇 섬뜩하다. PRRI 사건 전후로 미남카바우족은 대규모 이주를

했다. ‘반란군’ 출신이라는 낙인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폭력적 상황들이 주민들의 자존감과 가치관을 뒤흔들었고 PRRI가 몰락함에 따른 패배감과 모욕감이 오랫동안 그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혔다. 이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들 사이에 뿌라잇노, 마르또, 사디꾼 같은 자바식 이름이 유행했던 것도 PRRI 반란 지역 출신임을 감추려던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나수티온은 한 발 더 나아가 샤리르, 수바디오, 모하마드 로엠, 뿌라위또, 아낙아궁 그테아궁 같은 이들을 모두 잡아 들이라는 체포령을 내렸다. 이들이 PRRI-빠르메스타 반군과 연루되어 수카르노가 1962년 1월 7일 마카사르를 방문할 때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실증적 증거도 없는 무모한 혐의였고 스스로 신념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도네시아 독립달성을 위해 매진했던 수판 샤리르나 모하마드 로엠 같은 인사들을 테러범으로 몬 것은 나수티온이 자신의 충성심을 지나치게 과시하려 폭주했던 측면이 엿보인다.

모하맛 낫시르, 샤리푸딘 뿌라위라느가라, 부르하누딘 하라합, 까스만 싱오디메쵸, 이사 안샤리, 부야 함파 같은 마슈미당 인사들에 대한 체포령도 뒤따라 떨어졌다.

당시 PRRI 측에서는 정부가 군사적 진압작전을 실제로 벌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정황이



모하맛 낫시르



까스만 싱오디메쵸



이사 안샤리



부야 함파

곳곳에 보이는 바, 이 사건은 충분한 각오도 없이 저지른 섣부른 혁명인 셈이었다. 중앙과 지방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려 했던 것인데 중앙정부를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일이 커져버렸고 중량급 정치인들과 장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쉽사리 패를 물리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반란세력 인사들은 독립전쟁 당시 진압군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전우이자 동료였으므로 훗날 선처가 이루어져 대부분 감형 또는 사면이 이루어졌고 PRRI 주동자들은 그 후에도 자신들이 한 일이 반란행위였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올곧은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압군과 반란군 양측에서 그들 휘하에 있던 수천 명의 생명이 스러진 사건에서 주동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남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셈이 되어버리는 건 너무나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태의 주동자인 아흐맛 후세인 대령도 독립전쟁 참전용사였다. 그는 수마트라 빠당에서 1925년 4월 1일 출생한 인물로 1998년 11월 28일 7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반란군의 수괴였지만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처형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천수를 누렸다.

빠르메스타 반란

한편 북부 술라웨시에서는 D.J. 솜바 중령의 스페스타 투쟁현장 운동이 PRRI의 뒤를 이었다. 흔히 빠르메스타라 부르는 이 사건은 PRRI 반란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술라웨시 등 외곽 지역을 차별해 제한된 경제지원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음에 기인했다. 또한 자바민족에 대한 반감도 한 원인이었다. 자바인들에게 집중된 인구비중이 신생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발전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경제적, 정치적 세력구도 역시 자바인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었다. 여기서 시작된 갈등이 분리독립의 유혹을 불러 일으키던 차에 중부 수마트라에서 터진 PRRI 수립선언에 더욱 고무되었던 것이다. 1957년 3월 2일 마나도 소재 사리오(Sario)에

있는 빠르메스타 대학 회의실에서 아침 7시에 열린 회의에는 정치가, 학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참석해 있었다. 여기서 웬 나요안 대위는 중부 수마트라에서 PRRI가 수립될 수밖에 없었던 중앙과 지방의 발전상 차이를 설명한 후 “술라웨시 중부와 북부의 빠르메스타 투쟁운동은 PRRI의 입장에 백프로 동의하며 온전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이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빠르메스타 역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며 말을 맺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기립해 환호하며 이렇게 외쳤다.

“PRRI 만세! 빠르메스타 만세! 솜바 만세!”

D.J.솜바 대령은 중북부 술라웨시 지역군 사령관으로 이날 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이었다. 회의는 30분간 휴회했고 그동안 에디 가골라 소령, 웬 나요안 대위 등 장교들이 선언문 문구를 다듬었다. 회의가 재개되자 참석자들 앞에 나선 펜체 수무알 중령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단절선언을 포함한 빠르메스타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런 후 돌프 룬투람비 소령이 이 선언에 동의하느냐 외치며 군중심리를 유도하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중앙정부는 펜체 수무알 중령과 솜바 대령, 그리고 그의 동료장교들을 즉시 공화국 육군으로부터 불명예제대 처리했다. 현지 일반인들의 반응은 사뭇 이중적이었다. 빠르메스타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단절을 선언하자 빠르메스타 부대에 자원입대하기 위해 줄을 늘어선 마나도의 학생, 청년들과 전 KNIL부대 출신자들이 바로 마빵엣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한 반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진압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의 개입은 이 시점에서도 이미 뚜렷이 엿보였는데 미국은 군사고문을 파견하고 탄약과 고사포를 비롯해 혁명군에게 필요한 전쟁물자를 대량으로 제공했다.

다음호에 계속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는 2021년 3월1일, 한인문화회관(코리아 센터 옆) 2층에서 동남아남부협의회사무실개소식을 가졌다.

102주년 삼일절 기념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는 2021년3월1일,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박태성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102주년 3.1절 기념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동포들이 참석치 못하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협력하여 33인이 모여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박태성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기념사를 낭독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 중 해외동포들에게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로부터 나라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지금 3.1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며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전민식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통해 배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서로 화합하자” 라고 말했다. 배상경 재인도네시아 명예고문의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하였다.

(제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격리숙소에도 봄은 온다

홍석영 (한인뉴스 편집장)

나는 혼주로소이다.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인 축제는 돌날, 결혼, 환갑, 칠순... 뭐 이 정도 아닐까?
내 돌날과 자식의 결혼식은 간판주인공과 맞먹고 싶은 연기와 조연의 마음이 이해되는 때라고 치고,
난 혼주를 하기위해 비행기를 탔다.

전날의 인도네시아에서 콧구멍 두 쪽이 받은 면봉의 공격은 좀 조심스럽고 곧게 들어왔다. 눈알이 시리고 아렸다. 막상 내 코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서대문보건소에서 받은 면봉 공격은 초전박살의 민족성만큼이나 들어와서는 한 바퀴를 휘둘러 한방으로 끝을 내려는 듯 야무졌다.

숙소는 별로였다. 나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도 내 방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되기에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14일을 끌어안고 있다가 나와 함께 해를 볼 수 있었다. 숙소에 들어오기까지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다. 이 또한 편치 않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격리생활을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입실을 하자마자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방이 사진의 느낌과 달랐다. 실물과 사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에서 격리를 하려다가 결국 민폐를 끼친다는 판단에, 임박해서 숙소를 정했다. 선택의 폭은 좁았고 14박15일이 빨리 지나갈 줄로 여겼다.

나오는 식사의 양이 많다. 홈트를 한다고 팔 다리를 접고 펴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소화력이 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새 쌓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 이 한몫 거들고 있다. 외부커피와 크로와상, 샌드위치 등 아이들과 친구들의 쏘기 경쟁도 그새 한풀 꺾인 삼 일째이다. 고작 두 밤을 잤다.

이제 인스턴트 커피도 허니버터칩도 수세미까지 배달이 완료됐다.

친구가 추천한 ‘La Bikina’ 를 반복해서 들었다. 흥을 돋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디션에서 살아남으려는 남성트리오의 성의를 다한 입모양에서 전달되는 절절한 진정성이 내게 힘을 줬다.

주인장에게 A4 용지 10장만 문 앞으로 갖다 달라고 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것을 호의는 시작도 말자로 단정 짓지 않는 주인장이길 바라며...

종이가 확보됐다. 고마웠다.

받자마자 아들을 그렸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게 아니라 혹시 선물이 될까? 하는 생각에 오랜만에 사람을 그렸다. 찍어서 보냈더니 “이게 나야? 엄마는 미술에 기본이 잘 돼 있구나!” 라는 카톡의 답이 왔다. ‘아! 이래서 내가 붓을 쥐었지.’ 기억이 되살아났다.

글 쓴다고 산으로 들어가던 때도 있었는데... 이젠 글에서 나오는 작가들은 랩톱을 끼고 커피점에서 사람들을 만나가며 글을 쓴다고 하니 나도 시류를 따르고 싶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싶지만 스스로를 타이른다. 주전부리 많이 하면 밥을 잘 못 먹잖아.

군인이 바깥의 것이라면 무엇이건 탐하고 보는 마음이 이 마음이려니.

비행기에서 가져 온 초코파이를 군인의 마음으로 한입. 두입. 클리어.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의 ‘슈독’ (SHOE DOG-신발에만 몰두하는 사람) 을 읽고 있다. 글도 사람을 닮았는지 머무르지 않고 질주하는 게 나를 시원케 한다. 책 속의 글 중 젊은 날의 그의 멘트가 인상적이다. “**한심한 바보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찬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들은 옷을 껴입고서 몽유병 환자처럼 단조로운 일상 속으로 걸어간다. 그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는가? 왜 현재를 즐기면서 살지 않는가?**”

나는 비가 올 확률만으로도 집안에 있으려는 사람이다. 단조로운 것이 복잡한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다. 원래 내가 이렇게 호기심이 없었나? 노화의 과정인가?

이곳은 모텔(일명 러브 호텔)을 자가격리 안심숙소로 전환해 놓은 곳이라 일상을 살아내기에는 불편한 환경이었다. 그 중에 조명이 제일 불편했다. 노랑고 뿌옇다. 형광등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는 것만 충족시킨 뒤는 것이다. 백열등아래에서 책을 읽으면 머리에 온기가 전달됐다. 돋보기 밑으로 시린 눈을 껌뻑이며 밝은 자연광아래에서도 안 읽던 책을 구태여 읽었다. 현대판 형설지공.

4밤을 잤다.

한국의 좀비물은 좀비들의 움직임이 서양의 좀비와 달리 빠르고, 사연을 지니고 있어 괴물로만 치부할 수 없단다, 좀비들도 피해자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그만큼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난 생각한다. 두 어머니들이 나의 격리생활에 걱정을 더해가며 소설을 쓰고 계실 때마다 내 상태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당신의 손주들은 시달렸다. 왜 어른께는 정해진 답만 해야 하는지 또 깨달았다. 엄마 그리고 어머님.. 전 좀비세상이 와도 꽤나 오래 버틸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퀼트 DIY 가 도착했다. 막상 가위로 천에 본을 그리고 자르다 보니 소품을 할 걸...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았다. 예전과 달랐다. 퀼트 바늘귀가 이리 좁았던가? 실의 끝을 네다섯 번 침을 바르고 잘라가며 돋보기 안경을 연신 치켜 올렸다. 이걸 이리 한 땀 한 땀 공을 들일 일인가?

6밤을 보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든 생각이 이게 할 짓인가?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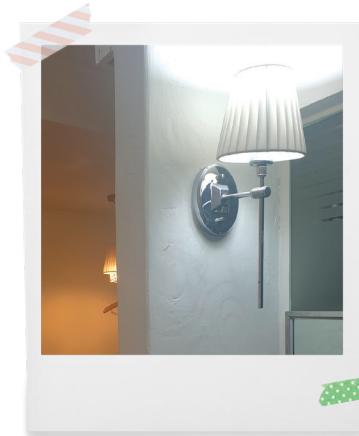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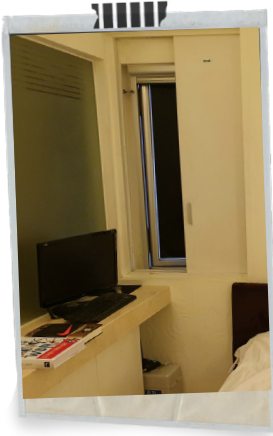
마음속에 화가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은 무슨 행복했던 날들에 대한 인과응보 인가?

후~ 자아를 내려놔야한다, 자아를 연구하지 말고 잊어야한다. 머리도 마음도 굴리지 말자.

♪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 ‘지킬 & 하이드’ 처럼 내안의 두 개의 캐릭터 중 체제 순응의 그것을 불러온다.

땡~ 점심도시락이 문 앞에 도착했다는 종이 울렸다. 식기 전에 먹어야지.





방이 너무 건조해서 피부의 당김이 느껴졌다. 혼주라고 마사지는 못 받을망정 이럴 수는 없다. 옷을 빨아 바닥에 널기 시작했다. 축축하진 못하더라도 푸석하진 말자.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 준비됐다는 걸 보여줘, 다시 해봐, 완전한 문장으로. 일반화로는 잡지 못 팔아. 그리고 내가 국방부의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왔어,” 미드 ‘The Bold type’ 에서 편집장의 대사로 내 입으로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 뱉어 보고 싶은 말이었다.

평소 집에서 하던 넷플릭스 보기를 결국 하게 됐다. ‘The Bold type’ 이라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미드를 골랐다. 잡지사에서 일하는 여기자 세 명의 직장 에피소드와 일상을 그린 뻔~한 드라마인데 극중의 편집장을 만나고 싶었다. 국방부 시계만큼이나 여기도 ‘똑딱 똑딱’ 잘 가고 있다. 이곳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나 지나고 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뒤편 뿌옇고 노랗게 배경을 만드는 조명을 바꿔야했다. 눈을 이리 혹사해선 안 된다. 밖에서 조달한 전구로 방안의 네 개의 전구 중 두 개를 갈았다. 환하다.

바깥의 배달음식을 먹으려고 카톡으로 “오늘 점심은 도시락을 먹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장에게 이렇게 보내면 “헐, 알겠습니다.” 답이 항상 같았다. 왜 ‘헐’ 이라고 하지? 배달된 도시락은 먹을 만했지만 두 끼에 한번 꼴인 제육볶음이 금세 질렸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네 밤만 자면 된다.

인도네시아 내 집이 그림다. 혼주 덕담을 써서 아들에게 보냈다. 미리 식당 측에 보내야하는 모양이다. 1분 55초짜리 편지 같은 축사를 작성하고 감상에 젖어 한동안 먹먹했다. 식당에서 울컥해서 분위기 망치면 안 되는데. 내 뜻대로 되려나.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꾸자.

격리생활을 하면서 머리를 감으면 그루프를 말고, 추리닝을 입어도 깔맞춤을 하고자 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일할 능력이 있어 보여서 사형장으로 빨리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뼈아픈 충고지만 사는 것은 어느 부분 역설적일지라도 서로 통한다!?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술하게 수화기를 던지고 전화 회사의 수리공으로부터 좀 성숙해 지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직진 본능의 열정 덩어리인 ‘필 나이트’ 는 항상 ‘나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반항적 기질의 맏아들 덕에 그의 바람은 공회전을 하고 있었다.

모든 곳에 권위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맏아들은 자기의지에 반하면 이를 자신에 대한 억압으로 간주하고 거칠게 반응하며 스포츠 경기를 할 때마다 상대팀 선수와 겨루지 않고 규정에 맞서서 경기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자신이 스포츠를 망치는 큰아들과 그 행동이 동생에게도 미쳐서 점점 스포츠와 담을 쌓는 작은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지켜봐야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협상은 바로 두 아들과의 협상이었다’ 고 부당한 운명을 탓했다. 그 큰아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수심 46미터에 도전하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550페이지의 ‘슈독’ 은 그렇게 끝이 났다. 주로 회사 경영에 대한 난관을 헤쳐 나가는 서사가 대부분이나 내게 다가온 게 이것이다.

세 밤이 남았는데 처음에 준 생수 2L 짜리 6병 중 반병이 남았다. 한 병만 줄 수 있냐고 주인장에게 물으니 2L 짜리 6병을 만원에 판다고 했다. 아리수 서울의 수돗물 를 끓여먹을까 했는데 주변인의 만류로 330ml 의 생수를 배달해서 먹기로 했다. 최소단위가 20개들이 였으나 어쩔 수 없다. 내일은 출소 전 절차로 PCR 검사를 위해 보건소에 가야한다.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자.

날씨가 그닥 춥지 않다. 좋은 날이다.

어제 오후 예약한 콜 밴 택시를 타고 선별진료소에 다녀왔다. 공항에서 바로 갔던 그 아침에 비하면 봄기운이 역력했다. 면봉의 공격 따위는 이제 이야깃거리도 안 된다.

속소로 기어들어오는 것이 생각만큼 아쉽지 않았다.

열세 밤을 잤다.

아침에 PCR검사결과 음성 통지를 카톡으로 받았다. 돌아갈 때를 위해 영문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검색했다.

간혀 있어야나 볼 것 같은 옛날 영화 ‘침밀밀’ 을 재밌게 봤다. 홍콩에 갔던 기억이 떠올라 어지러운 간판 속에 복잡한 거리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유명한 주제곡 ‘침밀밀’ 한국어 번역:달콤해요 의 원곡이 인도네시아 민요인 ‘Dayung Sampan’ 이라니 그 연관성이 놀랍다.

난 2주 동안 보이스트록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자주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다” 필나이트가 그가 육상선수로 활약하던 대학 시절을 기념해 농구장 건립을 했는데 그 입구 명판에 새긴 문구이다.

불가촉인으로 사는 것도 하루 남았다.

점심이 닭조림이니 저녁이 또 제육볶음일 것 같다.

서대문 보건소에서 각종 방역 제품은 제공했지만 체온계는 없었다. 매일 자가격리자 보고를 하려면 체온계는 필수인데 바로 적외선 체온계를 주문하여 다음날 받았으나 건전지가 장착되지 않아 다시 건전지를 주문하느라 하루가 더 소요됐다.



경제

“올 경기 회복은 부동산, 건설, 자동차 산업이 견인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 부동산, 건설, 자동차 산업이 올해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3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BI)은 부동산, 건설, 자동차 산업을 부양해 소비자 지출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동산, 건설,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석유, 가스, 광업 등은 수요 약세와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엄격한 이동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피치의 살만 알람샤 이사는 8일 “기업에 따라 회복세가 달라질 것”이라며 “부동산 분야는 15억 루피아 미만의 브랜드 있는 단지에 세워진 주택이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정부가 이동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3.49%였고, 4분기

에는 -2.19%로 약간 개선됐다.

올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 3.5%로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인프라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인도네시아투자관리기구(INA)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피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단과 오토바이 중 배기량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해 사치세를 인정한 것과 중앙은행이 자동차 할부구매 계약금 상환선을 하향한 것이 자동차산업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신중하게 소비를 결정하고 자동차는 생필품이 아니어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진 못할 것으로 보았다.

인도네시아자동차생산자협회는 올해 1월 자동차 도매판매량은 52,9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22% 감소했고, 소매판매량은 53,997대로 33.38% 감소했다.

4월부터 순차적 건기 시작... 정상적 기후패턴 보일 듯...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건기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고 25일 안파라통신이 보도했다.

드위꼬리파 까르나와띠 BMKG 청장은 이날 “4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이 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누사똥가라, 발리, 자바 일부

는 4월에, 그리고 깔리만탄 일부, 술라웨시, 자바의 나머지 일부 등 지역은 5~6월에 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BMKG는 올해 건기 중 강우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정상적인 기후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드위 청장은 건기에는 통상적으로 가뭄이 생긴다며 호수와 저수지, 댐 등에 물을 저장하라고 당부했다.

“인니, 경제성장 6~7% 성장해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가 연간 6~7% 경제 성장율을 보여야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3월 17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청장은 “경제성장률이 2022년부터 평균 7% 이상 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타격으로 경제성장률이 5%대가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018년 미화 3,927달러에서 2019년 4,174달러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 3,911달러로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년에 3,810달러에서 2019년에 4,047달러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 3,806

달러로 감소했다.

수하르소 청장은 1인당 GDP와 1인당 GNI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중간소득국가 중 하위그룹(lower-middle income country)으로 분류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2.07% 성장했지만 올해는 반등해 5%를 기록하고, 2022년에는 중간소득국가 중 상위 그룹(upper middle-income country)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미국(경제성장률 -3.5%), 중국(-6.1%), 멕시코(-8.3%), 필리핀(-9.5%) 등 세계 각국이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의 -2.07%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수하르소 청장은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달성할 때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OECD,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4.9%로 상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소비지출과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고 3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OECD는 경제 성장 지지 요인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예산을 전년 대비 20.6% 확대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전기보조금과 감세 등 경기부양프로그램 확대 ▲수출 증가세와 무역수지 흑자 ▲원자재 가격 회복과 국제 수요 반등 등을 꼽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을 4.5~5.2%로 예상한다.

OECD는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4%가 되고, 미국은 4.0%, 중국은 4.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각각 4.4%와 4.8%로 전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5%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국가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었다가 2020년 3분기부터 활동을 재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3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올해 1월 외국인 여행객 1위 한국인

“아직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할 시기 아냐” 경제조정장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가별 입국자 수는 한국인(9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66명), 중국(61명), 미국(52명), 일본(44명) 순이었다.

그동안 자카르타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올 1월에 한국이 이를 추월했다.

외국인 여행객 수가 2020년 12월에 21,858명에서 2021년 1월에 1,244명으로 한달 사이에 94.3% 감소했다.

한편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 경제조정장관은 2일 열린 ‘2021 MNC그룹 투자자 포럼’에서 “지금은 양국간 협정에 기초한 트레블 버블만 있다”며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제선 항공편을 개방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제한된 국제선 항공편만 허용하고, 주로 특별하고 필수적인 목적의 출장자들만 입국하게 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국내선 이용객에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중반에는 7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것이 관광 분야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네시아, 올 7월 발리 외국인 관광 재개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중반에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섬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23일 안파라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인도네시아 관광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부의 발리 관광 재개가 고사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이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6월이나 7월에 발리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하겠다고 지난 3월 1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7월에 발리의 주요 관광지인 우붓, 사누르, 누사두아 등 세 개 지역을 시험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 3월 22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중앙정부는 이들 세 개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17만 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업체 데스띠나시 띠르파 누산파라(PT)의 사드와 대표는 “1년을 기다려온 소식”이라며 “관광산업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발리를 다시 열어야 한다”라고 환영했다.

경찰청, 이슬람지도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요청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25일 안파라통신이 보도했다.

리스띠오 뿌라보워 경찰청장은 이날 중부자바 주 솔로 시에 사는 이슬람 지도자 하빕 시엑 빈 압둘 아세가프를 예방한 후 기자들에게 “경찰의 메시지를 이슬람 공동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라마(ulama,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요청했다” 라고 말했다.

리스띠오 청장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고, 하빕 이

슬람 지도자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1월 13일부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해, 15개월 내에 1억8,150만 명에게 접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 1호 백신 접종자는 이날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1월 26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군과 경찰과 협력해 방역과 백신 접종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부, 민간기업 부담 백신 접종 1천만명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주는 자가부담 백신 프로그램 이용자를 1,010만 명으로 목표한다고 25일 안파라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회사 바이오 파르마(PT Bio Farma)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은 지난 3월 13일에 민간기업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업이 경비를 조달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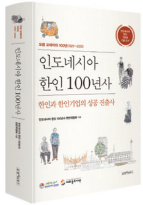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접수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부가 필요한 백신의 양을 계산해 조달할 방침이다.

상공회의소는 최근까지 민간기업 16,500개 소속 직원 850만명이 자가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부는 올해 1월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 이래 3월 17일까지 의료종사자의 82.25%인 121만명이 두 차례의 백신접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부 인재개발과 수기안토 과장은 일부 의료종사자들이 백신을 맞지 못한 이유는 개인의 건강 문제와 오지 수송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출판 기념 학술대회 서울대에서 열려 VIP신흥지역연구사업단-재인도네시아한인회 공동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VIP신흥지역연구사업단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출판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지난 3월 1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세미나 형식으로 열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발표자와 일부 청중이 오프라인 세미나로 진행하고, 줌(Zoom)으로 중개함으로써 한국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들도 참가할 수 있었다. 채수홍 VIP신흥지역연구사업단 단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업단은 한국이 발전하면 인도네시아도 같이 발전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현지기업과 한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겸 한인사 편찬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에서 출판된 서적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배경,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기업의 성장 가능성, 일터를 찾아 인도네시아에 온 한인1세대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2세대의 차이 등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만의 경험을 담았다” 고 한인사의 특징을 소개했다.

세미나 1부는 <진출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지혁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로 진행됐고, 한인사 편찬위원으로 참여한 김문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자문위원과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가 발표했다.

김문환 한인사 집필대표위원은 <초기 한인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배경>, 신성철 한인사 공동총괄위원은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 진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1부 토론은 정정훈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진행했다.

김 위원은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던 당시 인도네시아와 국제 정치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했던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가 1967년 만든 외국투자법과 광

업법에 근거해서 코테코, 코린도, 키데코 등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어 삼환기업을 시작으로 여러 건설회사들이 진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기업의 미래에 대해, 김 위원은 인도네시아 전반에 깔려 있는 민족주의 성향과 1세 경영인에서 2세 경영인으로의 승계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성철 위원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한국인과 현지인과의 갈등에 대해 서로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인과 현지인이 각각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는 한인사 취재 과정에서 앞서 진출했던 목재회사와 종합상사 등이 가진 현장 조사 자료와 경험은 1980년대 후반 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부문의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배경이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50년 역사의 한상기업 코린도그룹에 대해, 신 위원은 목재산업부터 제지, 신발, 중공업, 친환경 조림, 물류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초창기 임직원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사의 ‘살아있는 박물관’ 이라 칭했고,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꼽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할 경제 분야에 대해, 신 위원은 한국 제조업 특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의 2차전지 공장, 롯데케미칼의 폴레곤 석유화학단지 등이 진행되고 있고, 동부칼리만탄 신수도 개발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2부는 <협력과 상생>이라는 제목으로 엄은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한인사 편집위원인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과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이 발표했다. 토론은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한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CSCS) 고문이 했다.

사공경 수석집필위원은 ‘소프트 파워로 본 인도



발표자: 네명의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집필위원
(왼쪽부터) 김문환, 신성철 사공경, 조연숙

네시아 한인사’ 라는 제목으로 여성기업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와 한인유학생, 한인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해 소개했다.

정치와 경제 중심의 하드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여성과 문화 중심의 소프트파워를 언급한, 사공 위원은 “ ‘이코노믹파워’ 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발전에는 ‘소프트 파워’ 의 뒷받침이 있었다. 즉, 한국어, 문화, 예술과 교육(한국학교+유학생), 여성들의 역할이 상응해 주었기에 한인들의 삶의 전반이 더 단단히 성장할 수 있었다” 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한인사에서는 한인사회의 소프트파워를 하드파워의 보조 역할로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등하게 혹은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기록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조연숙 집필위원은 <생활사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 한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재인도네시아 한인과 한인공동체의 특징, 재외동포로서 재인도네시아 한인의 특징과 본국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 재인도네시아 한인의 미래와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 위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한국인들은 다수에서 소수가 되고, 이슬람국가에서 비무슬람이 되는 경험을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지화 과정이 약하다” 라며 미국과 유럽의 한인들과 비교했다.

1990년대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에 대해, 조 위원은 “개척정신과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며 서열문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었다” 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본지 신성철논설위원

계속되겠지만 팬데믹 이전만큼 활발하지는 못할 것” 이라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전망했다.

한인사회의 과제에 대해, 그는 “인도네시아 주류사회 진출과 토착민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어와 현지 문화를 습득하고 현지 사회에 대한 자선과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한인사 출간에 대해, 이지혁 연구원은 “동시대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만드는 의미있고 새로운 경험이다” 라고 평가했다.

한인사를 1개월에 걸쳐 꼼꼼하게 읽었다는, 정정훈 교수는 “오랜 기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현지와 관계를 맺어온 기업인들이 전하는 현지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라며 “김문환과 신성철 위원이 집필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사에 대한 정보와 통찰은 향후 한·인도네시아 경제분야에 있어서 입문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라고 논평했다.

엄은희 선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들이 일찍부터 가족을 동반했던 반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남성 단신 부임이 대세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기업이 활동하는 공간을 넘어서 한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현지인과 더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분석했다.

김창범 CSCS 고문은 “인도네시아 한인역사에서 많은 기록들이 사라질 시점이 됐다.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인사 디지털 아카이브 또는 사이버 기록관을 만들어서 향후 교육과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제안했다.

[제공: 한인뉴스]

복 짓는 날, 상짓 (Sangjit)

헬른(Heylen)/ HOTEL GRAN MELIA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거쳐야 하는 몇 가지 전통의례가 있다. 청혼과 양가 상견례, 한국으로 치면 ‘함 보내기’ 같은 혼약이 성사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양가에 예물 보내기, 약혼하기 같은 의례다.

인도네시아는 종족 수 만큼이나 다양한 전통 혼례 의식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 ‘두개의 시선’ 4월호에서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혼례 문화 중 상짓(Sangjit)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실용적인 상짓 문화도 나타났지만 그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

상짓(Sangjit)은 예물을 나누며 약혼식도 함께 치르는 것으로 신랑측 가족이 화려하게 포장한 선물을 신부측 가족에게 주는 문화이다. 첫 상견례를 하고 나면, 결혼식 전에 상짓(Sangjit)을 한다.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만 모이는 행사인데, 이혼한 가족은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 독특하다 할 수 있겠다. 상짓(Sangjit)을 통해 양가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겠다는 진심을 모두에게 알린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약속을 양가 부모와 친지들 앞에서 하는 셈이다. 양가 가족들이 모여 좋은 혼인 날짜와 상짓날을 함께 정한다. 한국문화에서 말하는 일종의 택일인데, 신랑신부의 출생달을 고려해 좋은 날을 정한다. 상짓은 오전 10시-오후 1시경에 하고, 대개는 결혼 전 1주일전이나 길게는 6개월 전에 하기도 한다. 상짓날은 양가 가족이 만나 단순히 예물을 주고 받는 날이 아닌 좋은 기운을 주고 받는 의미 있는 날이고, 가족의 뿌리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상짓날에 주고 받는 예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Uang susu (Angpao) 신랑 가족이 신부 가족에게 주는 돈인데, 신부를 잘 키워준 부모님에게 감사의 뜻으로 주는 선물이다.



☆**Uang pesta (Uang lamaran)**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은 Rp.1.000.000,- 한 묶음(1 juta) 을 준다. 은행에서 받아 온 그대로 Uang susu와 Uang pesta(Uang lamaran) 는 빨간색 큰 봉투에 넣어서 주고, 봉투에는 이니셜 S, L 로 표시를 한다. 돈 액수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신랑측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넣는다. 신랑이 결혼 후에 가정을 재정적으로 잘 책임져 나갈 수 있을지 능력과 준비 상태를 보는 것이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액수에는 반드시 ‘행운’ 과 ‘영원’ 을 의미하는 숫자 8과 9가 들어가야 한다. Uang susu와 Uang lamaran을 빨간 봉투에 따로 넣고 신부측에 전달하면, 신부는 봉투에서 일부만 빼고, 나머지를 신랑에게 돌려준다. ‘모든 결혼 비용을 책임지겠다’ 는 뜻으로 Uang pesta를 신부측에 전하는데, 신부가 봉투에 든 돈을 전부 가져가면 그 돈을 모두 결혼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옷 한 벌, 신발(구두), 화장품, 목욕용품, 거울 등** 신부에게 필요한 물건을 **선물 패키지** 로 준다. 이렇게 여러가지 선물을 담아서 주면 결혼 후에 신부가 필요로 하는 옷가지 등을 사줄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물을 받는 신부가 항상 고운 모습으로 외모를 가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인데, 특히 혼인하는 날에 예쁘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거울은 신랑신부가 결혼 후에 싸우지 않고 서로의 행실을 반성하라는 뜻으로 주는 선물이다.

☆**보석**은 서로를 신랑신부로 맞이하며 결혼이라는 제도하에 둘을 묶는 역할을 한다. 보통은 금으로 된 목걸이, 반지, 귀걸이, 펜던트, 팔찌까지 ‘폴 세트’ 를 준비한다. 금 보석세트를 붉은 상자에 넣어서 주는데, 붉은 상자는 행운과 행복을 상징한다.

☆**신선한 과일**도 예물로 준비한다. 단, 숫자를 짝수로 맞추어야 한다(8,10,12,16,18). 제일 인기 있는 과일은 사과와 귤이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색깔이 빨갛고 금빛을 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둥그랗고 맛도 달고,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와 귤이 결혼생활에 평온함, 행복, 웰빙,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다른 과일을 선물해도 좋다. 짝수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두리안이나 람부탄 같은 가시가 있는 과일은 피한다.



☆**양초**도 선물에 포함된다. 양초에다 빨간 리본을 단다. 용(naga)과 피닉스(불사조)가 그려져 있는 양초 두 개를 쌍으로 준비한다. 빨간 리본은 ‘밝음’, ‘안녕’, ‘보호’를 상징하고 결혼식 전에 불길한 에너지를 막아준다. 불사조가 그려진 양초는 신부측이 가져가고, 용이 그려진 양초는 신랑측

이 다시 가져간다. 양가 모두가 양초에 있는 용과 불사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족발 두 개**(짝수로 준비).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족발로 만든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다. 특히 중국 푸젠성과 대만에서 족발을 즐긴다. 중국인들은 족발이 액운을 떨쳐 내주고 안전과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상짓날에도 족발이 등장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통조림에 들어 있는 족발도 괜찮고, 레찌(과일)나 령갱(과일) 통조림이나 완두콩 통조림을 짝수로 준비해도 된다.

☆**꾸에(kue) 또는 달걀 절인 음식.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이 빠질 수 없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붉은 색으로 된 ‘꾸에 망꼭(kue mangkok, 뽕)’이다. 화목하고 복이 넘치는 가정생활을 이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에 망꼭을 준다. 신랑신부가 사회적으로 입신하기를 희망한다. 꾸에 망꼭도 8개나 8의 제곱으로 준비한다. 8이 ‘무한한’ 모양을 하고 있어 끊임없이 넘쳐흐르는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8을 제일 좋은 숫자로 친다. 꾸에(kue) 말고도 사탕 같은 단 것들을 준비해도 된다. 단 것에는 자녀들에게 행운이 깃들도록 항상 ‘달달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길 바라는 양가 부모의 희망이 담겨 있다.

☆**레드와인 또는 샴페인 2병. 결혼酒**. 신부 부모님이 행운을 얻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신부측은 답례로 빨간색 시럽 두 병을 준비하여 레드 와인과 교환한다.

상짓날 쓰이는 물건을 빌려주는 Felur Sangjit 이라는 렌탈숍이 있다. 이 샵을 운영하고 있는 Ibu Sanny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국의 전통문화인 상짓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 했다. 수마트라의 메단이나 칼리만탄의 폰티아낙 지역에 있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상짓 문화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지만, 자바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국계들은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상짓날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Ibu Sanny는 “아무래도 특히 자바섬에서는 ‘중국적인’ 문화를 제대로 이어 나가기 어려웠던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2 세대에 걸친 세월 동안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전통을 제대로 잊지 못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거하신 구스 두르(압둘로흐만) 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중국인들이 전통을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던 것에 젊은 세대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게 Ibu Sanny의 생각이다.

Salam budaya! (문화여 영원하라!)

(번역: 민선희)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체육관 운영 중)

안녕하세요,

이달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크로스핏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은 CrossFit Open Game이라는 예선전 시합을 온라인으로 시행 후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Fittest Man On Earth)를 Offline 시합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호에는 Open Game 운동목록 중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목록은 오른쪽 박스와 같습니다. 3개 라운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라운드별 3가지의 운동이 포함됩니다. 3가지 운동 중 2가지는 같은 운동을 반복합니다.

30 Air squat

30 V-Up

30 물통 Snatch

*** 1분 휴식**

30 Air squat

30 Gorilla Jump

30 물통 Snatch

*** 1분 휴식**

30 Air squat

30 Push Up

30 물통 Sn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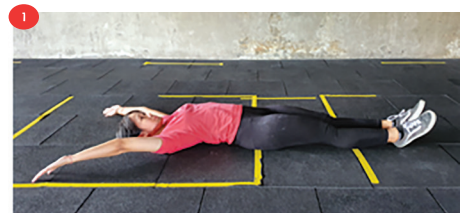
1. 첫번째 라운드

1) Air Squat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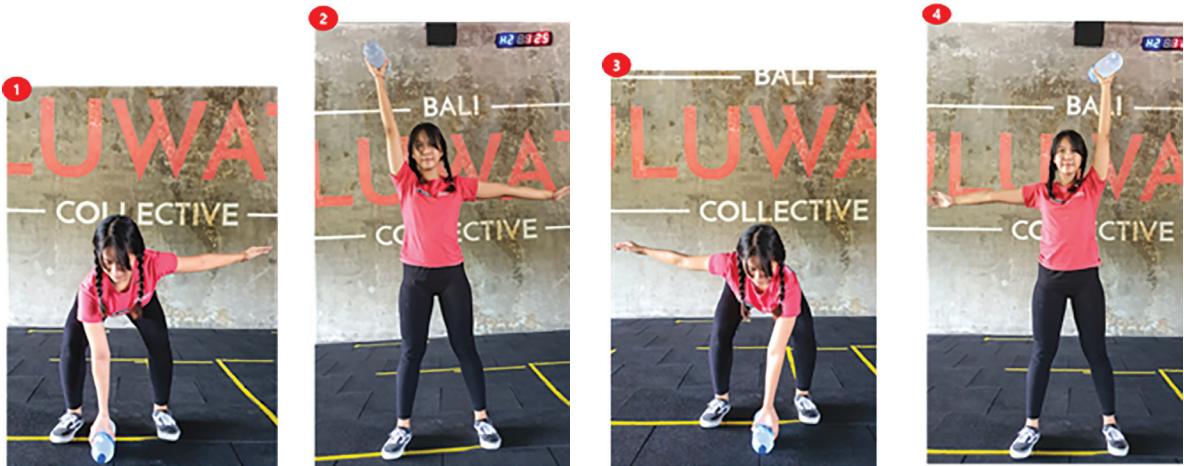
-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후 뒤꿈치에 무게를 싣고 그대로 앉는다
- 스쿼트 시 엉덩이는 무릎의 높이보다 약간 더 내려가도록 한다.
- 스쿼트 자세에서 몸의 무게는 뒤꿈치에 약 80%가량 싣는다.
- 스쿼트 이후 다시 일어나면 하나
- 동일한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여 30개 완성

2) V-Up

- 양팔을 머리위로 올리고 다리를 뻗은 상태로 준비
- 복근에 힘을 주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다리를 들어 올려 손끝이 발가락 부분을 터치한다.
- 손끝이 발가락을 터치 후 다시 준비자세로 돌아오면 하나
- 이 동작을 반복하여 30개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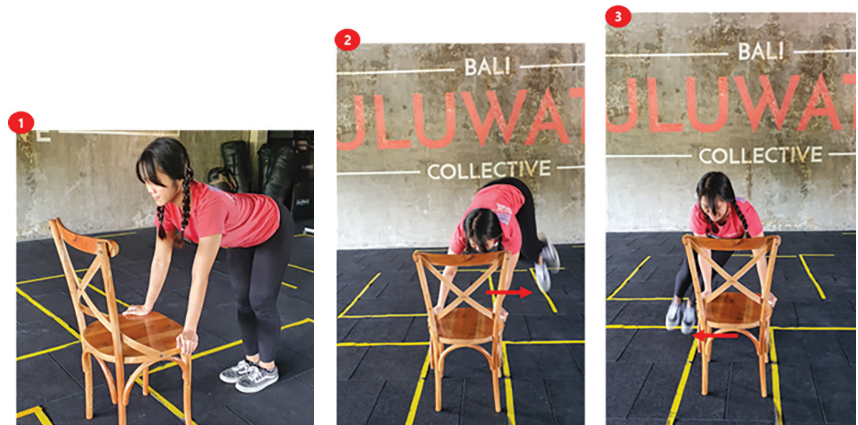


3) 물통 Snatch



- 준비단계는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후 양발 가운데 물통을 놓는다.
- 운동이 시작되면 상체를 숙여 오른손으로 물통을 들어서 머리위로 들어 올린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물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을 시 무릎, 허리, 어깨를 완전히 뺀어준다.
- 이 동작이 하나다.
- 물통을 양발 사이에 놓은 후 다음은 왼손으로 물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
- 이렇게 반복하여 30개 수행
- 30개가 끝나면 첫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고 1분간 휴식.

2. 두번째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의 3가지 동작 중 2가지(Air Squat & 물통 Snatch)는 같은 동작이므로 아래와 같이 중간 한 개 동작만 설명해 드립니다.

두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면 다시 Air Squat 30개를 한 후 집안의 의자를 이용하여 Gorilla Jump 운동을 시작

- 의자의 끝 양쪽을 양손으로 잡고 양발은 모아서 준비
- 왼쪽부터 뛰어서 양발을 이동. 이 동작을 하면 하나.
- 이후 양발을 점프하여 오른쪽으로 이동. 2번
- 이렇게 30개를 수행

Gorilla Jump 30개를 수행 후 3번째 동작인 물통 Snatch 30개를 수행하면 두번째 라운드가 완성되고 다시 1분간 휴식합니다.

3. 세번째 라운드

세번째 라운드의 세가지 동작 중 두가지(Air Squat & 물통 Snatch)는 같은 동작이므로 아래와 같이 중간 한 개 동작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세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다시 Air Squat 30개를 한 후 아래와 같이 Push Up 운동을 합니다.

-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뒤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면 준비 완료
- 가슴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간 후 양팔을 밀어 다시 준비단계 자세처럼 만들어주면 1개.
- 이렇게 30개 수행



Push Up 30개를 수행 후 3번째 동작인 물통 Snatch 30개를 수행하면 세번째 라운드가 완성이 되면서 전체 운동이 완료가 됩니다.

이 운동을 1주일에 2~3회 반복하게 되면 근력 및 지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며 집에서든 땀을 흘리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운동을 하면 시간이 약 15분 정도(초보) 소요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두번째, 세번째 이 운동을 반복하면서 총 운동 수행시간을 좀더 당기도록 노력하면 보다 단시작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교민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 나가야 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ID “pac1jch” 또는 전화번호 081 338 964 258 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지난 3 월호부터 한국음식 설명하기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이번 호 주제는 ‘한국식 치킨’ 이에요.

Winda

[1] Kalau nonton drakor itu, orang Korea suka sekali makan ayam goreng **malam-malam**, ya? Enggak takut gemuk?

[2] Haha. Ayam goreng memang enaknya dimakan pas malam. Apalagi makannya sama ngebir. Ah, **endes** [엔드스] **banget**. Ayam goreng itu cemilan malam favorit orang Korea.

Sani

Winda

[3] Sekarang sudah banyak merek ayam goreng Korea masuk ke Indonesia.

[4] Iya, tapi aku tetap lebih suka ayam goreng **ala Indonesia**. Ayam goreng kunyit, is the best.

Sani

Winda

[5] **Lidah**mu sudah jadi lidah orang Indonesia ya.....

[풀이]

- [1] 한국 드라마 보니까 한국사람들은 **밤늦게** 치킨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 같아 그치? 살찔까 봐 무섭고 그런 거 없나 봐?
- [2] 하하. 치킨은 원래 밤에 먹어야 맛있거든. 맥주랑 먹으면 어땡고. (**맛이**)**끝내주지 아주**. 치킨은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야식이야. *minum bir = ngebir
- [3]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치킨 브랜드도 많고.
- [4] 응. 근데 나는 **인도네시아 스타일** 치킨이 더 좋아. 꾸넛 넣은 치킨이 최고야.
- [5] 인도네시아 사람 **입맛**이네.....

*lidah 혀; 입맛 (예) “Cocok di lidah saya.” 제 입맛에 맞아요

한국사람들은 언제부터 치킨을 좋아했을까?
Sejak kapan orang Korea suka makan ayam goreng?

Sumber : “치즈님이라 불리는 치킨의 역사” Side View 2019.5.21

◇치킨은 흑인들의 소울푸드 (*comfort food*) 였대. Katanya ayam goreng itu *comfort food*nya orang Afrika Amerika.

◇**노예**로 강제노역할 때 흑인들이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인**이 남긴 닭 목, 닭발, 닭 날개를 기름에 튀겨서 뼈째로 먹었던 게 치킨의 원조야. Pada zaman mereka kerja paksa sebagai **budak**, mereka disisain ayam sama **majikannya** seperti bagian leher, kaki, sayap gitu, dan kemudian mereka goreng potongan-potongan ayam itu. Itulah asal mula cerita orang mulai makan ayam goreng dalam sejarahnya.

◇한국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주한 미군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어. Menurut pengetahuan umum, orang Korea mulai makan ayam goreng sejak pasca Perang Korea, dikenalin sama tentara Amerika yang berdiam di Korea.

◇전기구이 통닭이라고, 튀기지 않고 닭을 **통째로** 구워 먹는 것도 있어. Ada juga ayam yang tidak digoreng tapi dipanggang pakai listrik, diguling-guling, **ayam utuhnya**.

◇식용유와 닭이 **방방곡곡**에 보급되면서 전국에 치킨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Seiring dipasoknya minyak goreng dan ayam ke **penjuru** Korea, warung khusus ayam goreng pun **bermunculan**.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월급날**에 가끔 갈색 종이봉투에 담긴 치킨을 사오셨는데,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서 닭한마리 파티를 하는 거지. Zamannya papaku masih kecil, dibeliin ayam goreng kalau kakek **gajian**. Ayamnya dibungkus di kantong kertas (ber)warna coklat. Kalau kakek gajian dan bawa pulang ayam gorengnya, semua anggota keluarga ngumpul untuk pesta ayam goreng itu.

◇치맥은 정말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야. 치맥이 이제는 외국에서도 **인기있는 K-food** 가 되었어. Chi-maek (chicken ‘ayam goreng’ + maekju ‘bir’) itu makanan favorit orang Korea. Chi-maek sudah menjadi salah satu K-food yang **laris manis** di luar Korea.

◇양념치킨은 한국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알고 있어. Sepengetahuan aku, yangnyeom chicken itu pertama kali dibuat oleh orang Korea. (**sepengetahuan aku** = **setahu aku** 내가 알기로는)

한국사람들은 왜 치킨을 좋아할까? Mengapa orang Korea suka ayam goreng? (=menggemari ayam goreng?)

Sumber : Penyebab Orang Korea Gemar Sekali Makan Ayam Goreng dan Minum Bir

(Penulis : Dave Hazzan, Artikel ini pertama kali tayang di MUNCHIES) ☞ 글이 아주 좋아요. 일부만 실어 보았으니 전체 원문을 한번 공부해보세요!

Chi-maek alias ayam goreng khas korea yang dimakan sambil minum bir, adalah **makanan murah meriah** favorit banyak orang. Sayangnya, mengelola **warung ayam goreng (hof)** di korea itu **gampang-gampang susah**. 치맥, 맥주를 마시면서 먹는 한국 스타일의 치킨은 많은 사람들이 **싸게 즐기는** 음식이다.

아쉬운 건, 한국에서 치킨집(호프집)을 운영하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다**는 점이다.

Orang Korea adalah **ahlinya** mengolah berbagai jenis masakan berbahan daging ayam. Orang Korea **tahu betul** cara mengolah daging ayam. 한국사람들은 닭고기를 재료로 여러 종류의 요리를 만드는 데 전문가다.

한국 사람들은 닭고기를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요리할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

Di Korea, paduan ayam goreng dan bir disebut dengan satu istilah “chi-maek,” sebuah kata **hasil kombinasi** kata bahasa Inggris “chicken” dan “maekju” , bir dalam bahasa Korea. Kombinasi ini sangat digemari oleh para pekerja kantor, buruh kerah biru-atau artinya hampir seluruh penduduk Korea yang rela **berdesak-desakan** dalam kios-kios sempit untuk menikmati ayam goreng, bir lokal yang disuguhkan dalam picther tiga liter dan **acar lobak**. 한국에서는 튀긴 닭과 맥주를 같이 먹는 걸 치맥이라고 부른다. 치맥은 영어의 ‘치킨’ 과 맥주(한국어로 ‘bir’ 를 뜻하는)를 조합한 단어다. 이 치맥 조합을 오피스 직장인부터 블루컬러까지 아주 좋아한다. 한국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작은 술집에 딱딱딱 붙어 앉아 치킨과 3 리터짜리 피처에 든 로컬 비어와 무(acar lobak)를 즐기는 것도 마다 않는다.

“Biar dan ayam memang sudah **berjodoh** dari dulu.”

옛날부터 닭하고 맥주는 궁합이 잘 맞았어요

Kalau pelanggan malas keluar dan **nongkrong** di hof terdekat, mereka tetap bisa **mengorder** panganan ini dari rumah mereka. Dalam 15 menit, pengendara motor-umumnya doyan ngebut dan agak nekat-bakal sampai ke tempatmu dalam 15 menit. (보통 호프에 가서 먹던 손님들이) 집 근처 호프집에 나가 앉아서 먹는 게 귀찮으면 집에서도 치킨을 배달해 먹을 수 있다. 15 분만에 배달기사가 치킨을 배달해 준다. 보통 배달기사들은 (신속배달을 위해) 고집스럽게 속도를 내기 때문에 집까지 15 분만에 치킨이 배달된다.

Yangnyeom Chicken itu bikinnya gimana sih?

양념치킨은 대체 어케 만드는 거야?

Penggemar ayam goreng wajib bikin ayam goreng ini. Setelah digoreng dengan lapisan tepung hingga **garing**, ayam dilapisi dengan saus yang pedas, manis dan gurih. **Enaknya bikin nagih**.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치킨을 꼭 만들어 봐야 한다. **바삭**할때까지 튀김옷을 입혀서 닭을 튀긴 뒤에, 매콤 달콤 맛있게 기름진 소스를 입힌다.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간다**.

Bikin nagih (어근 tagih, menagih) ‘중독성이 있다, 자꾸 먹고 싶다’

ketagihan : terus-menerus meminta (ingin) 무언가를 계속 원하다

Bahan

- ♦ 10 buah sayap ayam
- ♦ 1 sdt garam
- ♦ 100 g tepung kentang
- ♦ minyak goreng

Bumbu

- ♦ 2 sdm gula palem
- ♦ 1 sdm gula pasir
- ♦ 1 sdm gochujang
(pasta cabai merah Korea)
- ♦ 1 sdm shoyu
- ♦ 1 sdm pir Korea, parut
- ♦ 3 siung bawang putih, parut
- ♦ 1 cm jahe, parut
- ♦ 1 sdt minyak wijen
- ♦ gochugaru (bubuk cabai Korea)
- ♦ 1 sdm air jeruk nipis
- ♦ 1 sdt biji wijen

[단어]

bahan 재료
sayap ayam 닭날개
sdt = sendok teh 티스푼
sdm = sendok makan 밥숟가락/테이블스푼
tepung kentang 감자전분
bumbu 양념
gula palem 야자설탕
gula pasir 일반가루설탕
pir Korea 한국배, parut 갈기
siung 쪽(마늘)
minyak wijen 참기름, biji wijen 깨
bubuk cabai 고춧가루
jeruk nipis 라임



Cara membuat 만드는 방법

- [1] Taburi sayap ayam dengan garam hingga rata. 닭날개에다가 소금을 골고루 뿌리기
- [2] Taruh dalam wadah tertutup dan diamkan semalaman agar seluruh cairannya kurang.
뚜껑이 있는 통에다 닭을 넣고 하룻밤을 가만히 두서 물 빼기
- [3] Campur semua bahan menjadi satu. 양념 한 데 다 섞기
- [4] Masak hingga mendidih dan agak kental. 양념을 팔팔 끓여서 살짝 걸쭉해질 때까지 익히기
- [5] Angkat, lalu saring dan dinginkan. 양념 들어올려서 걸러서 식히기
- [6] Tiriskan ayam dan lap hingga benar-benar kering. 닭에 물기 빼기, 물기가 없을 때까지 닦기
- [7] Lumuri sayap ayam dengan tepung kentang hingga rata. 전분을 닭날개에 골고루 묻히기 (발라주기)
- [8] Panaskan minyak banyak di atas api sedang. 중간불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데우기
- [9] Goreng sayap ayam hingga kering kecokelatan lalu tiriskan. 색깔이 브라운이 될 때까지 바삭하게 튀기고 나서 기름 빼기
- [10] Selagi panas, aduk cepat dengan bumbunya hingga rata. 아직 뜨거울 때 양념 골고루 섞기
- [11] Taburi biji wijen, sajikan hangat. 깨를 뿌린 다음에 따뜻한 상태로 내놓기

Sumber : 3 Resep Hidangan Korea Populer yang Sering Muncul di Drakor (Detik News, 2021. 3.24)

나를 쑥쑥 키우는 인니어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a817@daum.net



Woodfire Burger

(인도네시아 배달음식 6탄)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봄~봄~봄~ 봄이 왔네요~♪ 한국은 벌써 벚꽃이 흐들어지게 피기 시작했어요~ 진달래, 유채꽃, 철쭉 등도 연이어 개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벚꽃축제 구경하러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에서 알록달록한 4계절 꽃들을 즐길 수는 없지만, 연중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에서 맑고 푸른 바다(?)와 다채로운 열대과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이번 호는 오랜만에 찾아 뵙는 배달음식 특집으로, Burger King, Carl's Jr. Burger, KFC, MacDonald 버거에 지친 분들을 위해 배달 수제버거 맛집 <Woodfire Burger>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Woodfire Burger는 남부 자카르타(Ulujami 지역), 브까시, 땅그랑, 보고르 등 총 4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접 만든 두툽한 패티와 속이 꽉 찬 구성물로 유명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메뉴는 바로바로 Brisket Burger(119,000루피아)입니다. 브리스킷(Brisket)은 쇠고기 가슴부위로 한국식으로는 양지머리이지요. 소에게는 쇠갈이 없기 때문에, 이 부위가 소가 이동하거나 서있을 때의 무게의 약 60%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브리스킷에는 질긴 결합조직의 비중이 높으며, 오랜시간에 걸쳐 연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요. 가장 대중적인 조리방식은 미국식 BBQ 스타일의 훈연조리입니다. 이 버거에 들어간 브리스킷이 이 조리방식을 활용하였는데요, 스모크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향도 향이지만 고기가 정말 부들부들합니다. 분명 질긴 부위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조리가 된 것이 매우 신기합니다.

훈제 브리스킷 외에도 쇠고기 패티, 어니언링 튀김, 오이피클, 양상추, 치즈소스 등이 듬뿍 들어가 굽주린 배를 두둑하게 채워줍니다. 어니언링 튀김옷도 얇게 입혀져 매우 바삭바삭합니다. 역시 수제버거답게 버거의 높이가 무려 15cm이상으로 한입에 배워 먹기에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훈제 브리스킷과 쇠고기 패티를 동시에 한입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제버거입니다. 강추합니다!

그 다음은 Stuffed Cheese Burger(62,000루피아)입니다. 쇠고기 패티, 쇠고기 베이컨, 오이피클, 양상추, 치즈소스 및 비프소스 등이 잘 어울려진 이 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Brisket Burger보다 버거 높이도 낮고 구성물도 다소 적지만, 폭신평신했던 버거빵과 꾸덕꾸덕한 치즈소스가 입안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이 일품입니다. 버거빵도 그 유명한 미국의 ‘썹썹버거’ 부럽지 않은 퀄리티로, 버거빵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패티는 마치 쇠고기 분쇄육이 아닌 고기를 직접 칼로 다진 듯한 식감으로 씹는 맛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Smoke Burger(78,000루피아), Mushroom Burger(73,000루피아), BBQ Burger(55,000루피아), Double Stuffed Cheese(99,000루피아) 등도 인기메뉴이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감자튀김 밖에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얇고 긴 감자튀김이 아닌 짭조름한 시즈닝이 뿌려져 있는 두툼하고 짧은 감자튀김으로 버거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Woodfire Burger〉

음식 종류 : 수제버거

가격대 : Rp 15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화~일 / 11:00~20:00

주소 : Jl. Kp. Baru 5 No.11,
Ulujami, Jakarta Selatan

※ Google 참고



BAE DONG SUN
(Peneliti Dari Korea)

만화스토리작가의 세계 배동선 작가 📎

(인터뷰 진행:이영미 편집위원)

지난해 3월 9일부터 그라메디아 서점 전국매장에서 시리즈의 첫 두 권이 발매되는 ‘Komik Horor Nusantara’를 히트시킨 만화 스토리 작가가 2016년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설가라면? 동시에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아모르문디)의 저자면서 『막스 하벨라르』(시와진실)와 다수의 책을 번역한 번역가라면? 흥미가 돈는다. 웹툰과 유튜브의 시대에 글쓰기 기술로 무장한 ‘각본의 힘’은 점점 커지는 때, 배동선 작가님을 모셨다.

Q. 안녕하세요 배동선 작가님, 인도네시아 교민 작가분 중 가장 바쁘고 잘 나가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웃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도 가끔 내가 뭘 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전업작가로서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현지 문학을 번역하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과 출판산업 동향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쓰고 한국 매체 몇 군데에 인니 소식 보내는 일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요컨대 마감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가가 되기 전엔 사회생활 초창기부터 주로 납기에 쫓기는 생활을 했으니 본질적으로는 줄곧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Q. 어떤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오시게 되셨나요?

첫 직장이었던 한화그룹 무역부문의 의류공장이 자카르타 짜깁(Cakung) 지역 KBN 보세공단 안에 있었어요. 거기 부임한 것이 공장이 세워진 지 7년차인 1995년 1월의 일입니다. 그 공단에 오래된 분들도 한화공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원래 이름이었던 ‘골든벨’을 오래 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듬해인 1996년 공장이 벨기에회사에 매각되고 본사 의류팀도 해체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자카르타에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맨 바닥에서 인도네시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Q. 저 역시 “나를 키운 8할은 만화였다,”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만화를 좋아합니다. 스토리 작가의 주 업무는 무엇인가요?

만화용 스토리보드를 쓰는 건 만화제작의 첫 단계입니다.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만화가가 컷을 구상해 콘티를 짜고 그림 그린 후 채색하고 말풍선을 채워 넣는 식으로 진행되죠. 작년에 한국 청비 스튜디오, 현지 출판그룹 그라메디아와 작업한 인도네시아 호러만화(Komik Horer Nusantara)는 거기에 번역작업을 한 단계 더 거쳤습니다. 작년 11월에 나온 세 번째 만화책엔 한인뉴스 지면에도 소개되었던 한국문학 전문번역사 히야신타 루이사 양도 참여했어요. 만화 스토리보드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림을 그린 청비스튜디오 측에서 잘 맞춰주어서 원만히 끝난 경우입니다.



<나무위키 참고>

만화 스토리 작가의 주 업무는 기본적으로 만화의 뼈대와 스토리라인, 컷신과 연출을 구상하고 제작하여 콘티로 만들어 작화가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콘티란 만화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만화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컷을 구성하고 등장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특정 부분에서 특정 인물을 클로즈업하거나 로앵글로 표현하는 등 독자들의 눈을 끌 수 있는 카메라 앵글 배치가 중요하다. 기본적

으로 만화의 콘티를 짜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은 부분은 작게’라는 명언이 있다. 예컨대 A와 B가 싸우는 장면을 한 쪽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자. A와 B가 서로 마주치는 장면은 크게, 주먹을 쥐고 전투준비를 하는 장면은 작게, 서로의 주먹이 서로를 때리는 장면은 주먹만 클로즈업을 한다던지... 이것은 만화 스토리 작가의 개인 기량에 따라 다르다.

Q. 보통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려면 만화가협회, 문화센터에서 스토리 작법을 배운 뒤 작화가와 협업으로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연재하는 방식으로 데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떻게 만화 스토리 작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는지요?

저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무속에 대해 글을 써왔고 지금도 동포매체 테일리인도네시아에 ‘무속과 괴담 사이’라는 제목으로 무속과 귀신이야기를 격주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 청비스튜디오에서 자카르타에 들어와 그라메디아와 미팅을 했는데 지금도 그라메디아 전국 서점에 청비의 정현희 작가가 그린 공포만화가 스테디셀러가 되어 진열되어 있어요. 그라메디아 측은 생각지도 않았던 유명 만화가의 방문에 즉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번엔 해외 소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를 사용해 주길 원했어요. 당시 청비 측은 지인을 통해 저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관련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안 청비 측이 저를 스토리작가로 스카우트하면서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Q. 서점마다 꽂혀있는 ‘만화스토리 작법서’와 유튜브의 ‘시나리오 발상법’이 실제 이야기를 쓰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매뉴얼들이 작업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창작’은 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창의력과 거의 반대 개념인 ‘매뉴얼’이 창작 자체에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로 뽑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콘텐츠란 대체로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니 취재와 독서가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Q. 만화 스토리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들려준다면?

저 스스로 경험 많은 만화스토리 작가라 하긴 어려워 조언을 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일반론을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 능력부터 함양해야 하겠죠. 방법론적으로는 요즘 웹소설을 각색한 웹툰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습작을 한 후 적당한 사이트에 좋은 웹소설을 연재하면서 반응을 살피고 독자를 늘려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작화 스튜디오의 주목을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입문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Q. “제 마음에 있는 악귀가 사람들의 저주를 좋아해요.” 2020년 초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방법 (謗法, The Cursed)>에 작가님의 블로그 콘텐츠가 소개되었다는데 자세한 얘기 듣고 싶습니다.

‘방법’ 시즌 2를 준비하던 제작사 측에서 관련 자료를 찾다가 인도네시아 흑마술사에 대해 쓴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본 모양이에요. 그쪽 작가가 거기 등재된 내용, 특히 흑마술사들이 쓰는 부적들 사진의 사용허가를 요청했어요. 흔쾌히 승락했지만 드라마를 즐겨 보는 편이 아니라 그게 어느 에피소드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Q. 출판한 책 관련한 강의도 자주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글재주 하나 타고나는 것도 신의 선물이라는데 말재주까지 갖추셨군요.(웃음) 강의를 준비하시는 절차 역시 궁금합니다.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요? 2018-2019년엔 인도네시아 현대사 관련 강연이 몇 차례 있었는데 2020년 들어서서는 주로 귀신이야기 웨비나가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깊은 이야기보다는 인도네시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상식선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해 두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한 일말의 예의라고도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현대사 책을 쓰고 강연을 하던 초심은 내가 아는 알팍한 지식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동포사회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는 일반적인 강연 말고, 요청이 있다면 원래의 초심대로 갖 부임한 주재원이나 그 가족 단 한 명 또는 두 명을 대상으로도 한 두 시간 정도 상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내 삶의 작은 쉼표에 대해서 말하다. 이쯤에서 24시간을 쪼개 쓰시는 배동선 작가님의 취미가 궁금합니다. 취미도 진화한다는데 작가님의 쉼표도 진화론을 거치셨는지요? (웃음)

예전 낱기에 쫓기던 시절엔 글 쓰는 게 취미였는데 이젠 글 쓰는 게 일이 되어 취미가 좀 애매해졌지만 그래도 영화감상이 남았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이 외국자본에 개방되던 시점부터 정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동향보고서를 쓰면서 로컬영화에도 점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린 누그로호, 조코 안와르, 하눔 브라만티오, 리리 리자 등 유명감독들의 영화들, 부미랑잇과 사트리야 데와의 양대 수퍼히어로 유니버스, MD 픽처스의 다누르 유니버스의 추이와 그 독특한 세계관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도네시아 영화 이야기도 동포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 이름만 들어도 나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하신 취미여도 좋고 세금고지서를 포함한 무형/유형의 모든 것 중)

전업작가의 피를 끓게 하는 단어는 아무래도 ‘원고비’ 아닐까요?

200자 원고지 한 장에 신성반점 짜장면 두 그릇 값이 넘는 출판진흥원 원고 마감일엔 정말 피가 끓어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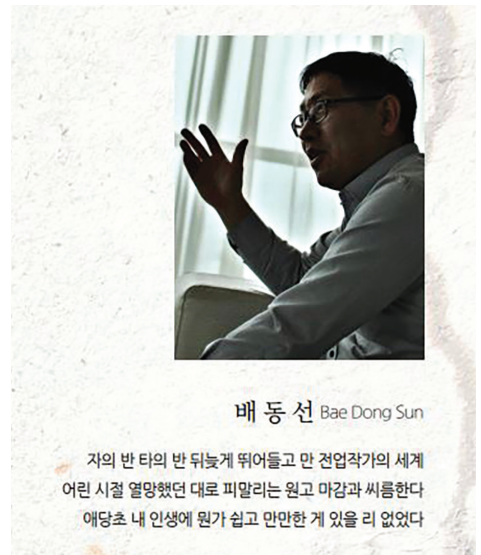
Q. “미안한 일이지만, 그게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얼마 전 ‘두려움’에 대해 얘기하신 작가님의 블로그(ID; Beautician, https://blog.daum.net/dons_

indonesia/) 글을 읽고 몇 번이나 읽은 구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건네며 눈물을 삼킬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에 대해 사랑한 마디 해주세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동안 여러 번 닳았던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준 가족들에겐 어떤 감사나 치하도 부족합니다. 가장이 범한 사업상 실수로 가족들까지 장기간 함께 고생해야 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보다 단단한 인간이 되어, 분명 턱없이 부족했을 생활비로 호주와 싱가포르 유학생활동을 잘 마치고 이제 외국에서 야무진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없이 대견스럽습니다. 어려운 시절 내 손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운 아내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Q. 매일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유쾌한 글을 읽는 독자로서 저는 즐겁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쓰시는 분은 힘드실 텐데...

어떤 이들은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지만 저는 밤새 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10년 넘게 관리한 블로그에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하지만 요즘 제 블로그의 기능은 잡동사니 보관창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 보고서용 자료들과 흥미로운 기사 번역본들도 모아둡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도 거기 매일 업데이트해 두고요. 최근 한달여 동안 중국팀 2명, 인니팀 3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100일간 글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쓴 에세이도 매일 블로그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 만으로도 꽤 즐거운 일인데 블로그를 찾아온 분들이 읽고 즐겁다면 더욱 고마운 일입니다.

Q. 배동선 작가님의 향후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번역사 출간, 양철성 영화 제작 이야기 포함)



지난 해 9월에 번역을 마친 함카의 1938년 소설 <판데르베익호의 침몰(Tenggelamnya Kapal Van Der Wijck)>이 5월쯤 출간될 예정입니다. 올해엔 <시티 누르바야(Sitti Nurbaya)>라는 소설책의 번역을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2019년 <막스 하벨라르>를 공동 번역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승운 명예교수님과 <리관유 평전> 공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프로젝트들이 그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한편 한인사회에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Historika Indonesia)에서 독립전쟁 당시 가룟 지역에서 네덜란드군과 싸웠던 유격대 빵에란 빠팍 부대(Pasukan Pangeran Papak)와 양철성 등 한국인 전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계획하고 있어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Q. 끝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에 연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읽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무쪼록 개인과 가정, 사업장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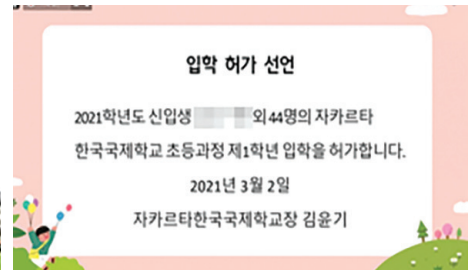
JIKS, 초등 신입생 원격 입학식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에서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지난 3월 2일 Zoom을 통하여 원격으로 진행된 입학식에는 45명의 귀여운 신입생이 참여하였으며 신입생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1학년 담임교사 소개, 학교장 환영사, 학생회 임원이 특별 제작한 축하 영상 공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장인사



입학허가선언

김윤기 학교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건강을 위한 바른 생활습관 기르기와 다양한 분야의 책임감을 강조하였으며 학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바탕으로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작년 3월부터 안정적인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했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실천력을 가지고 올해도 학생들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라이브스루 교재 및 학습준비물 준비

JIKS 초등,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온라인수업 교재 및 학습준비물 배부

지난 3월19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 초등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학습준비물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부하였다.

드라이브 스루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해당 학생의 인적사항을 적은 종이를 제시하고 준비된 학습준비물을 받는 방식이다. 이 날 배부된 교재에는 교육부 국정교과서를 비롯하여 영어 원서 교재, JIKS 자체제작 인니어 교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소프트웨어교육 교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구하기 어려운 준비물 중 한국을 통해 구입한 다양한 학습준비물이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춰 담겼으며 동아리 및 학년별 특색 활동에 필요한 제본 책자도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통관 지연으로 인하여 교과서 배부가 늦어지면서 JIKS의 초등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도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해 왔다.

이번 드라이브스루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원격수업을 기대하게 된 JIKS는 학기 중 추가 드라이브스루 학습준비물 배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JIKS는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 JIKS 1-3-3 감사 글쓰기, JIKS 1-1-5 학생상담을 상시로 운영하며 원격학습 속에서도 학생과 소통하고 학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한인청년회와 옥타자카르타 수재민 구호물품 전달식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KIYA와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 OKTA Jakarta는 무궁화그룹과 함께 인도네시아 Kepolisian Daerah Metropolitan – Polda Metro Jaya, Divisi Humas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 홍보실을 통해 이번 버카시군 강둑 범람으로 9개 마을 홍수 피해 주민을 위한 물품 전달식(약 50,000,000Rp상당)을 가졌다.

2021년 3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 홍보실을 방문하여 전달식을 가졌는데, 한인회 소속의 한인청년회 정제의 회장과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 김종현 지회장은 물품 트럭을 인솔해서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 대변인실 Bapak Yusri Yunus와 홍보실 고위관리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으며, 특히 무궁화 그룹의 지원으로 더 많은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본 전달식에서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 홍보실장인 Bapak Yusri Yunus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트링을 통해 한인교민의 구호물품으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특히 한국 전통 음식 김치에 대하여 많은 홍보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한인청년회 정제의 회장은 “해마다 년초에 발생하는 대홍수피해에 수재민들이 조금이나마 한국 교민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빨리 회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수재복구 활동에 밤낮을 가리지 않은 군경 및 유관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고 뜻을 전달하였다. 월드옥타 자카르타 김종현 지회장은 “한인사회는 언제나 어려운 인도네시아 국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고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 고 말하며, 관련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한인청년회, 옥타 자카르타 지회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 및 협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공: KIYA)



이영미 작가 <샘터상>, <제주기독신춘문예> 수상

이영미 작가가 <제43회 샘터상>과 <제3회 제주기독신춘문예>가작 수상의 영광을 동시에 안았다. 국내 최장수 동화 공모전인 <샘터상>은 아동문학가를 꿈꾸는 이들의

등용문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수상작은 추후 샘터 출판사와 협의하여 책으로 출간된다. 본 공모전에는 41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이영미 작가의 ‘마음대로 풍선껌’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마법의 풍선껌으로도 구현할 수 없는 가족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조금 느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상 소감에서 이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손을 존경합니다. 글 쓰는 고귀한 손들이 제게 위안을 주었듯, 마디마디 툭툭 불거진 제 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샘터 출판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깨우쳐 준 가족과 친구들, 『글나라』 김재원 선생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 작가는 2019년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에서 ‘맹꽁이의 집을 찾아 주세요’로 대상을 수상하며 아동문학가로 등단, 같은 해 <서울시 인권 동화 공모전>에서 ‘우리가 원조’로 동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재인니한인회에서 발간한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집필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동서문학상> 소설 부문 맥심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토리지의 정례식장 BORI의 모습

인도네시아 여행기 **여행은 언제나 옳다!**

수천, 수만 가지의 멋과 낭만 가득한 인도네시아. 잠시 들린 여행자들을 평생 머물게 만드는 마법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여행해 본 이가 또 있을까? 인도네시아 여행의 길잡이로 유명하신 젊은 여행의 김영구 대표가 그동안 발로 뛰며 찾아낸 23년 인도네시아 여행 노하우를 한인뉴스에 1년에 걸쳐 연재해 주기로 했다. 본격 연재에 앞서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누구인지 소개해본다.

Q 인도네시아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1997년 1월 17일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작은 아버지가 발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셨는데 거길 왔다가 그만,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Q 젊은 여행의 대표입니다. 여행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여행사를 열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였습니다. 좀 더 가성비 좋은 여행을 하려고 욕심을 낸 거죠. 당시만 해도 여행사 이름으로 예약을 하면 항공권이나 호텔이 더 저렴했습니다. 또 믿을 수 있는 현지 업체 수배가 쉬웠죠.

Q 보통 다른 여행사들은 여행 상품과 항공권만을 판매합니다. ‘젊은 여행’은 상품 판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컨설팅, 대표님과 함께 하는 여행 등 대표님이 직접 체험하신 여행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만의 경영 노하우일까요?

거창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저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 ‘혼자 가는 여행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가성비 넘치는 여행 하는 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다닌 그룹여행 이벤트는 2년에 걸쳐 매월 진행했는데요, 모든 비용을 현장에서 참가자 전원 1/N로 나눠 내면서 다녔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구요,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시니까 해외여행도 무척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녀보셨나요?

저도 그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여행사 사장이지만 다른 나라는 5개국 정도밖에 못다녀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니는 데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Q 그럼 23년 동안 인도네시아 여행을 도대체 몇 군데나 다니셨을까요? 셀 수는 있으세요?

사실 저도 세 본적이 없는데 한번 나열해 볼까요?

우중쿨론/판중르송/짜리타/아예르/천개의섬들/반둥/가룟/빵안다란/찌르본/스마랑/카리문/족자/솔로/말랑/수라바야/ 브로모/이젠/발리/롬복/플로레스/코모도/방카/블리툽/람퐁길루안/빠당/부깃멍기/메단/토바/바탐/아제/웨아일랜드/발리바판/사마린다/드라완아일랜드/타라칸아일랜드/블롱안정글/마카사르/타나토라자/마나도&토모혼...

머리 속에 인니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했던 지역들을 두서 없이 적어 보았는데 아마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적지 못한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방문만 했던 여행지가 아니라 대부분 적게는 여러 번 많게는 수십 번씩 가본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계획하지 못했던 숨은 보석들을 발굴해 낸 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깃멍기를 갔는데 산 정상 절벽의 아슬아슬 지어진 와룽에서 바라본 전경과 마닌자우 호수의 전경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이후로 부깃 멍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로 만들어 버렸죠. 한 번의 방문으로 만족했다면 숨겨진 보석을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석을 찾아 수많은 여행을 꿈꾸는 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Q 아마도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인도네시아의 멋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멋졌던 여행지, 가장 힘들었던 여행지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문화적으로는 타나토라자가 가장 놀라움이 컸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코모도 플로레스 여행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여행지는... 이젠 ‘등정’ 입니다. 이젠 체력이 안받쳐주네요. 하하.



토라자 부깃똥비리에서의
김영국 대표





토라자의 뽕짜이라 불리는 부깃뽕비리에서 내려다 본 토라자 전경

Q. 인도네시아 여행에서 이것 만큼은 꼭 해봐라(먹어봐라, 체험해봐라) 하신다면?

자카르타에 FOOD 투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자주 소개된 식당들 말고 현지인에 유명한 식당들 말입니다. 저희 밴드에 제가 일부 소개한 곳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인니에 사는 교민들에게 발리 족자를 벗어나 타나토라자 / 코모도/ 토바호수/ 브로모와 이젠 지역은 꼭 한번씩 가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Q 인도네시아 여행에서 이것 만큼은 절대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말아라 하신다면?

음... 간혹 현지인들처럼 해보고 싶다고 전철이나 차 지붕에 올라타기 시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코파자나 메트로 미니 체험은 되도록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 무슬림이 많은 나라니까 아이들 머리를 만진다던지, 왼손으로 물건을 준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이 지역 규율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Q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가족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함께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가족들은 어떠세요? 여행가를 둔 아빠와 남편에게 불만은 없나요?

일 년에 3회는 무조건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합니다. 오히려 아내와 아이는 제가 젊은 여행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네요. ㅎㅎ

Q 코로나 때문에 여행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항공 평균 매출의 10%수준으로 하락.. 여행상품 매출 Zero 입니다. ^^;





토라자 대표 전통 시장인 Rantepao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Q 요즘 여행을 하고 싶어도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랜선 여행'을 선보여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프라인여행에서 느끼는 우연과 감성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시공간 제약을 두지 않는 랜선 여행은 오프라인 여행의 보충제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Q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 같은 여행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다 개인적이고 남들이 안가는 곳을 찾는 모험족들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 '여행'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기존 여행시장의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패키지 상품은 그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이제 더 이상의 불특정 다수와 함께하는 단체여행만으론 여행사들이 생존하긴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화되고 Private 여행상품 또는 여행 정보 컨설팅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향의 여행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아직도 못 가본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아직도 더 가보고 싶으신 데가 이 인도네시아에 있나요?

아쉽게도 라자암팻과 숨바아일랜드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습니다.

Q 대표님에게 '여행'이란?

지금 독자님이 생각하시는 여행의 의미와 같습니다.^^ 휴식과 충전이죠.

다음호부터 김영국 대표가 23년 노하우가 듬뿍 담긴 생생한 인도네시아 여행기가 한인뉴스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진행: 조은아 편집위원)

삼족소와 가루다



오회분 4호묘의 삼족오

출처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92DD93A4FEA6ACA15>

유은규 (JKS 교사)

대학원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 화보책에서 해 속에 그려진 삼족오(三足鳥, 다리가 셋인 까마귀)를 보고 흥미를 가져 삼족오에 대한 자료를 찾아 봤고, 삼족오에 대한 아주 짧은 논문을 쓰고 가까스로 졸업을 했다.

해 속에 새를 그린 그림은 고구려 고분 벽화가 그려진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중국 화상석(그림이 그려진 돌판)이나 백화(帛畫, 비단에 그려진 그림) 등에서 여럿 발견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견되는 해 그림에는 참새나 비둘기 같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새가 그려져 있다. 대개는 다리가 두 개다. 다리가 세 개

그려진 것도 몇 있지만,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삼족오와는 달리 매우 평범한 새 형상이다.

삼족오는 고구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형상도 매우 신비스러운 새로 그려져 있어서 신화 속의 존재임을 짐작하게 한다. 고구려 고분 벽화 속의 삼족오는 머리 뒤로 길게 휘장 같이 날리는 벼슬을 갖고 있었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또 곳곳하게 서 있는 무릎 뒤로 뾰족한 비늘 같은 것이 뻗어 나와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삼족오는 중국 사람들이 그린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독창적인 신화 세계 속에 살고 있던 신비스러운 신조(神鳥)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삼족오와 연관된 고구려인들의 신화는 우리 문화에서 사라져 버렸고, 다만 그 흔적 정도가 중국의 옛 문헌 속에 나오는 예(羿) 신화에서 발견된다. 태양이 열 개가 동시에 떠올라서 엄청난 열기 때문에 모두들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임금이었던 요임금이 예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태양을 쏘서 떨어뜨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예는 동이족의 족장이었다고 하는데, 예가 활을 쏘아서 9개의 태양을 떨어뜨렸고, 태양이 떨어진 곳에는 까마귀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중국의 신화 전설의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칼럼 아닌가요? 왜 이렇게 우리 고분 벽화와 신화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나요?

내가 갑자기 삼족오와 예 신화를 떠올린 이유는 가루다 뻥뻥실라 때문이다. 가루다 뻥뻥실라(Garuda Pancasila)는 인도네시아의 건국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도네시아의 국장이다. 국가 상징 문양에 금빛 가루다가 주인공처럼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가루다가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가루다는 잘 알려진 대로 <마하바라타> 나 <라마야나> 같은 인도 고대 서사시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이다. 가루다는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밝기와 크기가 너무 엄청나서 신들의 요청으로 밝기와 크기를 조절했다고 한다. 날개를 퍼면 태양을 가릴 수 있을 정도였다. 가루다는 자기 형제에게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된 어머니를 풀어주기 위해 생명수인 암리타(Amrita)를 찾으러 신의 세계로 가서 여러 강력한 신들을 다 물리치고 그 생명

수를 차지했다. 또 힌두 신화에서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인드라와도 싸웠다. 가루다는 힌두교 최고의 신이면서 정의를 지키는 신인 비슈누의 부탁으로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새로 봉사하게 된다. 그래서 비슈누를 태우고 있는 가루다 그림이 많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태양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태양을 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게다가 가루다의 형제인 아루나(Aruna)는 아침 해 정도의 밝음을 갖고 태어나서 태양신인 Surya의 마부가 되었다고 하니, 두 형제 모두 태양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장에 가루다를 그려놓은 의미는 먼저 인도네시아가 신화 속 가루다처럼 강하고 큰 나라이기 때문이고, 또 가루다가 인도네시아 민족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비슈누의 새인 가루다가 인도네시아 민족 신화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검색을 해 보았지만, 의외로 별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찾지는 못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인들에게도 물어보았는데, 자바 전통 와양의 내용이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의 일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다가 인도네시아 민족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신화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자바 전통 인형극인 와양에 힌두 서사시 내용을 차용하고는 그 서사시 속의 가루다를 인도네시아적인 것으로 끌어온 것이다.

사실 가루다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상징으로 쓰거나 중요한 조형물로 사용하고 있다. 힌두 문화의 확장성을 엿볼 수 있다. 인도에서 기원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화와 전통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공유하면서도 자기네 것이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MAKNA DALAM BURUNG GARUDA



BURUNG GARUDA

Burung mitologi kuno dalam sejarah bangsa Indonesia, yaitu kendaraan Wishnu yang menyerupai burung elang rajawali. Garuda merupakan penggambaran bahwa Indonesia adalah bangsa yang besar dan negara yang kuat. Warna keemasan melambangkan keagungan dan kejayaan. Garuda memiliki paruh, sayap, ekor, dan cakar yang melambangkan kekuatan dan tenaga pembangunan.

PERISAI

melambangkan perjuangan, pertahanan, dan perlindungan diri untuk mencapai tujuan.

GARIS HITAM DI TENGAH

melukiskan garis khatulistiwa yang melintasi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membentang dari timur ke barat.

WARNA DASAR PADA RUANG PERISAI

adalah warna bendera kebangsaan Indonesia merah putih. Sedangkan pada bagian tengahnya berwarna dasar hitam.

PITA SEMBOYAN BHINNEKA TUNGGAL IKA

Semboyan Bhinneka Tunggal Ika adalah kutipan dari Kakawin Sutasoma karya Mpu Tantular. Kata "bhinneka" berarti beraneka ragam, kata "tunggal" berarti satu, kata "ika" berarti itu. Secara harfiah Bhinneka Tunggal Ika diterjemahkan "Beraneka Satu Itu", yang bermakna meskipun berbeda-beda tetapi pada hakikatnya tetap adalah satu kesatuan.



www.protespublik.com @protespublik protespublik

29 MEI 17 4 JUNI 2017 #PEKANPANCASILA

Sejarah Garuda Pancasila

<http://protespublik.com/detail/post/47/Sejarah-Garuda-Pancasila>

그러나 중국 문화는 다르다. 중국은 주변 민족을 문화적으로 압도하려고 했고, 좋은 것은 모두 중화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중국에는 고구려의 삼족오 같은 것은 없다. 예 신화도 우리 민족을 포함한 중국 동북방 민족의 신화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옛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신화로 정의해 버리고, 태양 속에 삼족오를 그린 것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유적을 중국의 문화 유산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도 이미 강제로 중국 국적으로 귀화시켜 버렸다. 중국 연길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유로 윤동주마저 중국인이라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치마저 자기네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술라웨시 중부 지역의 'Sesentola dan Burung Garuda' 전설에는 가루다가 지역민들을 괴롭혀서 죽이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가루다도 초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왕이 있고, 인간과 대화도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가루다가 <마하바라타>의 정의를 수호하는 가루다와 동일한 존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http://ceritarakyatnusantara.com/id/folklore/285-Sesentola-dan-Burung-Garuda>



김도엽(JIKS, G9) & 김도영(ACS, G5)

코로나속에도 쑥쑥 자라는 도남매



도남매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교복입어보기

#사춘기잘보내기 #친구의소중함

#학교의간절함 #건강을챙기기

#뽕소나#구농그데 #데사찌사돈 #가족등산

#끄븐라야보고르식물원



좋아요 2383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그리고 청동대포 Si Jagur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과 파타힐라
광장의 우물 (사진 : 자카르타 역
사 연구팀)

한인니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연구팀장 조은아

세 번이나 다시 지어진 옛 시청

자카르타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현재의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은 본래 바타비아의 시청이었다.

1620년 동쪽 칼리 버사르(Kali Besar Timur)에 지어졌던 첫 번째 시청 건물은 부실 건축으로 6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두 번째 청사는 1627년에 착공되어 80년만인 1707년 완공되었으나 부유했던 바타비아의 시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몇 번의 보수 작업을 거쳤으나 늘 불만족스러웠기에 점령자들의 자존심에 살려줄 만큼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 허물어버렸다.

1707년 잔 반 혼(Joan van Hoorn) 총독이 재임 기간 중에 착공한 2층 높이의 이 세 번째 건물은

1710년 7월 10일 아브라함 반 리빅(Abraham van Riebeeck) 총독 때 완공식을 거행했다. 완공식 이후에도 2년에 걸친 보강 작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2년 후인 1712년이였다. 당시 세계적인 최고의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VOC)의 예술인 수장이었던 반 데 벨트(W.J. van de Velde)가 설계도를 그리고 독일의 건설업자 케머(J.F Kemmer)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짓고, 2년에 걸친 보강작업까지 하면서 완성되었다. 이 시청 건설을 위해 기존의 계획 자금의 2배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네덜란드 왕궁(Royal Paleis op de Dam)으로 알려진 암스테르담의 옛 시청을 닮은 이 세 번째 시청은 가운데 둥근 돔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폭이 좁고 긴 복도형이 대칭적으로 이뤄진, 고전적이지만 수수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네덜란드 식민지 건축물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VOC는 이 중앙 건물을 중심으로 이후 나머지 두 개의 낮은 건물들을 신축하여 덧붙여서 고아원과 감옥으로 개조했다. 실용적이며 아름답게 심혈을 기울여 지은 만큼 지금까지도 이 건물은 건재하고 튼튼하다.

이 건물은 기본적인 시청의 역할과 동시에 여러 위원회들의 회의와 의결 장소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사법권을 지녔던 행정장관들의 모임과 사법 재판소의 역할도 병행했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중앙에 자리한 팔각형의 우물과 감옥, 두 장소가 연결된 지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과 처형이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후 칼럼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1974년 지금의 역사박물관으로 문을 열면서 이 건물에는 바타비아 시기의 점령자들의 화려한 생활과 점령당한 자들의 고통의 양면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산의 상징 Si Jagur

본격적으로 역사박물관 내의 유물 소개를 하기 전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할까 한다.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의 정면, 파타힐라 광장의 북쪽에는 포구를 순다끌라빠 항구로 향하고 있는 오래되고 요상하게 생긴 청동 대포가 하나 있다. 이 대포는 16세기(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려지지 않음) 중국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인 마노엘 타바레스 바카로(Manoel Tavares Baccaro)가 만들어 그곳의 포르투갈 요새인 ‘St. Jago de Barra’에 배치되어 있었다.

‘Si Jagur’라 불리는 이 대포는 수마트라 말라카로 옮겨졌다가 VOC가 바타비아를 점령한 후 1641년 바타비아로 가져와 성곽 요새에 배치했다. 1809년 바타비아 성이 디엔델(Daendels) 당시 총독에 의해 철거되면서 잘란 퉁꼴(Jl. Tongkol)에 방치 되었다가 1950년에 Si Jagur

대포는 현 국립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다시 1968년에 지금의 와양박물관에 전시되었다가 1974년 알리 사디킨(Ali Sadikin) 자카르타 시장에 의해 파타힐라 광장의 우체국과 자사 보험 인도네시아 건물 사이로 옮겨졌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손상이 우려되어 2002년에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뒤뜰로 들어갔다가 현재는 다시 파타힐라 광장의 우체국과 카페 바타비아 옆에 있는 자사보험 인도네시아 건물 사이에 자리잡았다.

화구의 지름 25Cm, 길이 3.85M, 무게가 3.5톤이나 되는 이 거대 무기를 수 차례에 걸쳐 위치를 옮긴 이유는 이 대포에 얹힌 중요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청동대포 시 자구르(Si Jagur)에는 라틴어로 ‘*Ex me ipsa renata sum*’ (나 스스로 다시 태어난다. Out of myself I am reborn)과 인도네시아어로 Semoga setan-setan dihancurkan! (마귀들이 박살 날 수 있기를!)이라 번역되는 라틴어 문장이 적혀있다.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뒤뜰에 전시되어 있을 당시 Si Jagur의 모습. 현재는 파타힐라 광장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Historical Sites of Jakarta)

시 자구르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대포가 엉뚱하게도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시 자구르는 그 모양에서부터 보통의 대포와는 사뭇 다르다. 대포의 끝부분에 주먹을 쥔 상태로 엄지 손가락 끝을 검지와 중지 사이로 내민 외설적인 모양의 마노 인 피카(Mano in Fica)가 디자인되어 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자들이 찾아와 이 부적 같은 존재 위에 꽃을 올려두거나 그 위에 앉아서 임신을 염원하곤 했다. 이러한 미신적인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1968년 이 대포는 몇 년 동안 외양박물관으로 옮겨졌었지만, 대포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불임 여성들이 찾아와 매일 장사진을 이뤘다고 한다.

번영과 독립의 상징

시 자구르와 같은 형태의 대포가 자카르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빠자자란(Pajajaran), 순다(Sunda)의 왕은 어느 날 나쁜 꿈을 꾸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치 천둥이 하늘을 뒤흔드는 듯 크고 강력한 무기의 소리를 꿈에서 들었다. 그는 총리에게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찾도록 명령했다. 왕은 심지어 총리 키아이 세토모(Kiai Setomo)에게 꿈에 나온 경이로운 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죽여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기에 이른다. 총리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슬픈 운명을 아내와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결국 부부는 집의 모든 문을 잠그고 침거에 들어간다. 며칠 간, 신하들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던 왕은 드디어 화가 나 키아이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다. 그러나 왕의 군사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고, 단지 크

고 이상한 파이프 두 개를 키아이의 집안에서 발견한다. 왕은 서둘러 달려와 이 특이한 물건을 보고는 자신이 꿈에서 본 그 무기가 바로 그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던 키아이 세토모와 그의 아내 나이 세토미는 둘 다 대포로 변해버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앙 자바(Central Java)의 대왕, 술탄 아궁(Sultan Agung)은 그 소식을 듣고 두 대포를 즉시 자신의 수도로 가져 오라고 명령한다. 남성 대포인 키아이 세토모(Kiai Setomo)는 술탄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바타비아로 도망을 친다. 그가 바타비아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고 그는 성문 밖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게 된다.

다음날 아침, 바타비아 사람들은 성문 앞에 서있는 신비한 대포를 보고 매우 놀라 이 대포를 존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낮의 열기로부터 대포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종이우산을 올려두기도 하고 교대로 소중하게 그것을 보살폈다. 그들은 그것을 키아이 자구르(Kiai Jagur), ‘Hon. Mr. Robust’ or ‘Mr. Fertiliy’라 불렀다.

한편 솔로로 끌려간 그의 부인인 나이 세토미(Nyai Setomi)는 지금까지도 혼자 그곳에서 쉬고 있다. 현지 이야기에 따르면, 가르벡 무루드(Garebeg Maulud 족자카르타의 전통축제) 축제 기간 동안 그녀는 울었고 솔로 사람들은 컵에 그녀의 눈물까지 모았다고 한다. 언젠가 키아이와 나이가 재결합하게 되면 정의가 전국을 통일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질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시 자구르의 파트너는 반튼(Banten)의 다르파라기(Darparagi)에도 존재한다. 그들은 다르파라기Darparagi (옛 반튼의 주



자사 보험 인도네시아 건물 옆 빨간 단 위에 시 자구르가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 참고로 카페 바타비아 옆에 보험회사 건물이, 또 그 옆에 우체국 건물이 있다. (사진 :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도)의 안뜰에 위치한 신성한 대포가 끼 아묵(Ki Amuk)이 자구르의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당시 사람들은 Ki Amuk과 Si Jagur가 만나면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통치가 곧 끝날 것이라 믿었다.

또 다른 전설에서 시 자구르는 VOC의 악명 높은 얀 코엔(Jan Coen) 총독의 출생에까지 연결된다. 17세기 초에 자야카르타의 왕자는 따누라가(Tanuraga) 공주를 스페인 배를 타고 나타난 수꾸물(Sukmul)에게 내어주는 대가로 이 신비한 대포 세 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뜨거운 불길이 자궁에서 뿜어져 나와 아무도 범접할 수 없어 자야카르타에서 쫓겨나 뿌뜨리섬에서 혼자 살던 따누라가 공주는 거인의 아들인 수꾸물을 만나 무르장 켄, 즉 얀 코엔을 낳았다고 전해지는 데, 그 때 선물로 받은 3개의 대포가 바로 Guntur Geni (마타람), Ki Amuk (반튼), Nyai Setomi (솔로) 등이라고 전해진다.

이 시 자구르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두 딸을 둔 어머니가 시 자구르에게 참배하기 위해 며칠에 걸쳐 멀리 동쪽 자바로부터 찾아왔다. 그리고 간절히 그녀의 소원을 빌고 돌아왔다. 이듬해에 그녀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을 했고, 결혼 한 딸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시 자구르의 전설은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으나 지금 파타힐라 광장에 있는 시 자구르의 엄지손가락은 여전히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을 향하고 있다. 마치 아름답게 서 있는 바타비아의 시청 안에서 벌어졌던 잔혹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다.

감수: 사공경
<참고문헌>

Historical sites of Jakarta / A. Heuken SJ,
Meriam Si Jagur / Thomas B. Ataladjar

어머니의 꽃, 군자란

김재구 /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부회장)

kwilliam67@gmail.com



꽃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간혹 똑똑한 강아지들은 주인과 헤어져 수 만리 떨어져 있어도 주인을 잊지 못해 주인집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꽃도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더욱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어머니가 키우시던 꽃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꽃피울 때가 아님에도 꽃을 피웠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 어머니는 조그만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신다. 베란다에는 여러 식물들이 자라는데 군자란을 유독 예뻐하고 사랑하신다. 군자란은 특이하게도 적도 같은 인도네시아처럼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는 살 수가 없는 식물이다. 오직 겨울의 강추위를 이기고 고통을 겪어야 3월 즈음 봄비를 맞으며 노란 오렌지 빛깔의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한국 같이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쩌면 군자란과 우리 어머니는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머니는 군자란을 보면서 혹시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위로 받고 계셨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한국의 슬픈 근대사를 모두 겪으신 분이다. 1939년 일제 강점기 때 하루꼬(춘자)라는 이름으로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마산댁이다. 한국인이 한국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슬픈 시대를 살아오셨고 1945년 해방이 되던 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소문에 외

할머니 등에 업혀 일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공포의 시기를 겪기도 하셨다. 그 당시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갈라지고 서로 대립하며 암울했던 시대다. 특히 남한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과 자유당 때의 부정부패 등으로 사람 살기 편하지 않았던 때, 어머니는 가난한 시골이 싫었고 막연히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하신다. 같은 마을에서 시계방을 하는 사람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서울에서 인쇄소를 한다는 아버지와 선을 봐서 결혼하고 설레는 맘으로 왕십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 그 때부터 어머니는 더 큰 인생의 고생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약주와 친구들을 좋아하시고 낭만적인 인생을 살았기에 경제관념이 없으셨다. 버는 돈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친구들과 모두 탕진해 버리고 직장 생활에도 적응을 잘 못하셨다.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나던 즈음 어머니는 나의 형을 낳으셨고 그리고 5.16 군사정변이 나던 즈음에는 누나를 낳았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장난감 공장을 시작하셨다가 동업자가 공금을 모두 들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거리로 나왔게 되었다. 그 때 나를 임신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너무 배가 먹고 싶었지만 돈은 없어 친한 친구에게 사정을 해서 배를 딱 하나를 얻어먹었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신다. 그리고 1967년 여름 유명한 강재구 소령이 부하들을 구하려 떨어진 수류탄에 몸을 날리던 그 해 10월에 내가 태어나 줄지에 나는 재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가난이 주는 힘겨운 삶으로 인해 내 나이 7세 때 우린 왕십리 산동네 1004번지로 이사를 해 둥지를 틀고 살게 되었다. 비록 대문은 없고 방문을 열면 파란 하늘이 그대로 보여서 여름엔 아주 시원했는데 겨울엔 몹시도 춥게 살았다. 특별히 먹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연탄도 부족해 심리적인 추위는 더 했던 것 같다. 그 때 내가 무릎을 다쳤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무릎을 완전히 못쓰게 되어 초등학교 때 많은 시간을 학교도 못 가고 날려 버렸다. 어머니는 그 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을 그치지 못하신다. 내 나이가 16세 되던 때 아버지는 짐을 싸서 행선지도 말씀 않고 세상이 싫다고 어디론 가 떠나셨다. 어머니는 오히려 더욱 이를 악물고 우리 삼형제를 홀로 기르셨다. 다행히 1996년에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이 보편화 되었고 나는 경희의료원에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해 넣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결혼을 하고 선교단체의 후원과 어머니가 모아 놓으신 돈으로 미국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다. 공항까지 나온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후 나는 거의 16년이 지나도록 어머니의 얼굴을 직접 뵈 수가 없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날 때 나는 뉴욕 시의 퀸즈지역에 살고 있었다. 테러범들이 비행기 동체로 월드 트레

이드센타를 들이 받아 불타서 무너지는 모습을 나는 강하나 정도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 때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하셨다. “재구야 몸 성히 잘 있나? 안 죽었나? 집으로 고마 오거라 거기 미국은 살 곳이 못되는 기라” “어머니! 괜찮습니다.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 때 영문학 석사과정을 아주 낮은 성적으로 졸업한 이유로 모든 지원한 영문학 박사과정에서 낙방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911 테러범들이 미국 유학을 와서 졸업하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이 들통 나 졸업을 하고 직업을 얻지 못한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 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은 영문학에 대한 꿈이 있어서 집으로 도저히 돌아 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더라도 남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었다. 그 후 나는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았다.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드릴 시간과 여유도 없었다. 미국 정부에 탄원서를 내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하여 허락을 받아 냈고, 나는 결국 문학 공부는 포기하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언어학과 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문학이 아닌 언어학은



더 이상 계속할 만한 학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2009년 당시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각 회사와 학교마다 감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은 미국내 직장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100여 군테를 지원해도 오라는 곳은 없었다. 오직 한 곳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영어 잘하는 크리스찬 한국어 선생님을 찾는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대환영이었다.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하겠다고 선택 직업업을 가졌지만, 난 다시 미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벌써 인도네시아에 산지도 8년이 넘어간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어 선생으로 열심히 살았다. 어느덧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난 2012년 여름, 그 때 나는 모든 경제적인 형편이 풀리기 시작했다. 적도에서 봄을 맞이하는 느낌이었다. 그제야 맘속에만 있던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볼 날이 왔다. 어머니와 김포 공항에서 헤어 진지 16년 만이다. 머

나면 나라에 살던 아들이 취직하여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어머니도 밤잠을 설쳤다고 하셨다. 감격스럽게도 자카르타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나는 피가 끓는 기쁨을 누렸다. 그날, 어머니의 얼굴도 마치 군자란의 꽃처럼 환하게 피어오르셨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군자란은 보통 3월, 4월, 늦어도 5월에 봄비를 맞으며 피어야 할 꽃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전혀 꽃을 피울 생각이 없다가 나와 어머니가 상봉한 그해 7월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어머니의 꽃, 군자란은 여름에 봄비처럼 나타난 막내아들 때문에 기쁨으로 꽃이 되어 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파트의 군자란은 장마도 끝나가는 그해 여름에 환한 주홍 빛깔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기쁜 얼굴처럼 피어난 군자란이 정말 신기하기만 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오버랩 되어 신기함을 더했던 그해 여름에 핀 군자란이 바로 어제 일처럼 행복을 불러온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면 자연인 꽃도 영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학생기자 JIS 12학년 김현영

미얀마 민주화의 꽃이 된 치알신을 추모하며



요즘 언론에서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불복종 시위와 이를 군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에서는 아웅산 수치 정부의 부정선거를 핑계삼아 지난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하고 1년간의 군정 실시 선포 및 쿠데타 지도부에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군부는 2월 15일(현지시간) 오전 1시부터 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까지 차단하였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만 군인과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희생자가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25세 이하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특히, 나와 같은 또래의 치알신이라는 여대생이 보여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헌신은 나에게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치알신은 “Everything will be OK”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 셔츠와 “A형”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단 채 시위에 참가하다가 3월 3일에 군경이 쏜 실탄을 머리에 맞고 숨졌다. 치알신은 죽음을 예감한 듯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 연락처와 시신 기증에 대한 메시지까지 남겨놓았다고 한다. 치알신은 쿠데타 이전까지는 한류와 태권도를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였으나, 쿠데타 이후 군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치알신의 애국정신을 보면서 애뜻함과 존경심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사소한 것에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나의 철없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과 정치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치알신의 노력을 통해 나는 민주

주의의 가치와 국민전체의 행복증진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노력에 적극참여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 난민봉사를 할때 미얀마의 소수민족을 만난 적이 있어, 미얀마 내에서의 소수민족과 여성차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미얀마 불복종 시위와 치알신을 통해 미얀마가 처한 실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더욱 가슴에 와닿게 하였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있음을 떠올리게 되었다. 바로 1980년 광주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것이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박정희대통령 서거이후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인사들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인들이 무력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 및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미얀마의 인터넷 차단과 비슷하게 모든 방송국 보도를 차단함으로써 그 실상이 당시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끈질기게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였다.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과 고통,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미얀마도 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치알신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행복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이루기를 두 손 모아 바란다.

<참고자료>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6080749>
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56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4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8496>

개정 근로기준법(4)

(전호에서 계속)

6. 아웃소싱(Alih Daya)

정부령 2021년 제35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m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III)

- 6.1. 아웃소싱(인력 파견)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인허가 조건을 갖춰야 한다.
- 6.2.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자 간 고용계약은 기한 부고용계약 혹은 무기한부고용계약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 6.3. 근로자 임금, 후생, 근무조건, 분쟁 해결 의무는 아웃소싱 회사에 있으며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로 약정해야 한다.
- 6.4.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웃소싱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 등 모든 권리를 책임져야 한다.

7.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정부령 2021년 제35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IV)

7.1. 기본 근무시간

- 7.1.1. 주 6일 근무제는 1일 7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 7.1.2. 주 5일 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 7.1.3. 특정 업종 혹은 특정일에는 위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7.1.4. 근무시간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다.

7.2. 특정 업종 혹은 특정 일 근무시간

7.2.1. 위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 혹은 더 적게 근무시킬 수 있다.

7.2.2. 해당되는 업종 혹은 일

7.2.2.1. 1일 7시간 이내에 일을 마치거나 1주 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업종 혹은 일

7.2.2.2.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업종 혹은 일

7.2.2.3. 근무지 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종 혹은 일

7.2.3. 위에 해당되는 회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2.4. 위 특정 업종 및 특정 일 시행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7.3.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명시 기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7시간 혹은 8시간) 보다 더 근무시키거나 덜 근무시키는 회사는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7.4. 시간외 근무(오버타임)

7.4.1. 1일 최장 4시간 1주 최장 18시간으로 제한한다.

7.4.2. 주간 휴식시간(일요일) 혹은 법정 공휴일 근무는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7.5. 시간외 근무 임금 지불 의무

7.5.1. 사용자는 시간외 근무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 임금 지불 의무가 있다.

7.5.2. 싱크탱크, 기획, 정책수행 및/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직책에 있으며 고임금을 받는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무 임금 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7조 3항). 시간외 근무 임금 지불 제외 대상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는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 임금 지불 의무가 있다.

7.6. 시간외 근무 요건

7.6.1. 사용자의 시간외 근무 명령과 근로자의 시

간의 근무 동의가 있어야 한다.

7.6.1. 사용자는 시간외 근무 대장을 만들고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7.7. 4시간 시간외 근무 시 음식물 제공 의무

4시간 혹은 더 시간외 근무 시 최소 1,400 Kcal 음식물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야하며 음식물 제공 의무를 돈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7.8. 근무 시간외 근무 임금 요율

7.8.1. 평일 기본근무시간 초과 첫 번째 1시간은 1시간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하며 그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 마다 1시간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7.8.2. 주간 휴식일, 법정 공휴일 혹은 주 6일 및 40시간 근무제에서 휴일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처음 7시간 근무는 1시간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하며, 8번째 시간외 근무 시간에는 1시간 임금의 3배를 지불해야 하며, 9번째, 10번째 및 11번째 시간외 근무시간에는 1시간 임금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8.3.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처음 5시간 근무는 1시간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하며, 6번째 시간외 근무 시간에는 1시간 임금의 3배를 지불해야 하며, 7번째, 8번째 및 9번째 시간외 근무시간에는 1시간 임금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8.4. 주 5일 40시간 근무제 회사에서 주간 휴식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시 처음 8시간은 1시간 임금의 2배를 지불하고, 9번째 시간외 근무는 1시간 임금의 3배를 지불하고, 10번째 시간, 11번째 시간 및 12번째 시간에는 1시간 임금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9. 시간외 근무 임금 계산 공식

7.9.1. 1시간 임금 산출 공식 : 월급 % 173 = 1시간 임금

7.9.2. 월급 근로자는 매월 고정으로 받는 임금 기준

7.9.3. 주 6일 근무제 일급 근로자 : 일급 x 25 = 월급

7.9.4. 주 5일 근무제 일급 근로자 : 일급 x 21 = 월급

7.9.5. 성과급제 근로자 : 최근 12개월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이 지역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역 최저임금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7.10. 오버타임 임금 계산 “예”

7.10.1. 주 6일 근무제, 월 고정으로 받는 임금 Rp.5,000,000.-, 일요일(공휴일) 출근해서 10시간 근무한 경우 오버타임임금 계산

7.10.1.1. 처음 7시간 오버타임 임금

Rp.5,000,000.- % 173 x 2배 x 7시간 = Rp.404,624.-

7.10.1.2. 8번째 시간 오버타임 임금

Rp.5,000,000.- % 173 x 3배 x 1시간 = Rp.86,705.-

7.10.1.3. 9번째와 10번째 오버타임 임금

Rp.5,000,000.- % 173 x 4배 x 2시간 = Rp.173,410.-

7.10.1.4. 오버타임 임금 총액 : Rp.664,739.-

7.10.2. 주 6일 근무제, 월 고정으로 받는 임금 Rp.5,000,000.-, 토요일(공휴일) 출근해서 10시간 근무한 경우 오버타임임금 계산

7.10.2.1. 처음 5시간 오버타임 임금

Rp.5,000,000.- % 173 x 2배 x 5시간 = Rp.289,017.-

7.10.2.2. 6번째 시간 오버타임 임금

Rp.5,000,000.- % 173 x 3배 x 1시간 = Rp.86,705.-

7.10.2.3. 7번째 시간부터 10번째 시간까지 오버타임 임금

Rp.5,000,000.- % 173 x 4배 x 4시간 = Rp.462,427.-

7.10.2.4. 오버타임 임금 총액 : Rp.838,139.-

7.11. 장기 휴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특정 회사에 한한다.

(다음 호에 계속)

그리운 아버지의 고향과 어린 시절

2녀 1남으로 태어난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다. 경상도 남자인 할아버지는 엄하고 가부장적이셨다. 비록 자식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못 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할머니는 그 시대의 ‘완벽한 어머니상’을 보여주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뒷바라지를 하셨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아버지는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5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으며 반장 자리도 도맡아 하셨다. 아버지는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운동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던 고향 집 뒷산에서 주말마다 운동을 즐기셨다. 아버지가 특히 좋아하던 장소는 광안리 바닷가. 지금은 요식업을 하고 계시지만 어린 시절 의사를 꿈꾸었다는 아버지의 깊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검푸른 바다가 넘실댄다.



K-Food 전도사



현재 아버지는 유명한 한식 체인점의 대표 이사직을 맡고 계신다. 인도네시아에서 <마포갈매기>의 체인점을 내고 싶을 때에는 아버지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아버지는 해외에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인 한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일이라며 뿌듯해하신다. 그러나 처음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펼친 사업은 요식업이 아닌 생수를 수입해 유통하는 일이었다.

2002년 한국인 ‘최초로’ 한국 브랜드의 생수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알린 장본인이다. 그 결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 외국인들까지도 품질이 검증된 한국 생수를 마시는 분위기를 정착시켰다. 물론 큰 매출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 K-food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는 포부를 밝히셨다.

여전히 로맨티스트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는 대학교에 복학한 뒤 어머니를 만났다.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운 마음씨에 반해 적극적인 프리포즈를 펼쳐 결혼에 골인하셨다. 두 분은 양가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꿈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셨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부부 금실이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신기할 정도이다. 물론 두 분도 가끔 부부싸움을 한다.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사랑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몇 시간만 지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콧소리를 섞어 “여보” “당신”을 부르는 모습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부모님의 자서전을 제가 써 드려요~

JIKS의 부모님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지도: 이영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의 곁에 없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출산을 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100일 동안 아기를 보지 못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한다. 드디어 백 일이 지나 인도네시아로 날아온 나를 처음 품에 안으시고는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못 하셨단다. 그 뒤 육아의 신이 된 어머니는 둘째와 셋째를 인도네시아에서 낳으셨다. 아버지는 첫째인 내가 태어난 걸 보지 못한 게 한이 되셨는지, 동생들의 출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생생한 감동을 느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신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

‘언제든지 정직하게 살자’ 는 ‘정직한’ 좌우명을 지닌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신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뺨이 터가 날 정도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신다.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혼나기 싫어 거짓말을 했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따끔한 훈계를 하셨다. 덕분에 나는 거짓말 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아이로 자랐다. 사회 생활로 힘들 때 아버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자기 자신’ 이라고 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다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좌우명과 별개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른에 대한 공경심’ 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이다.

삼 남매에게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못 맺는 우리 삼 남매. 그때마다 아버지는 무척 속상해 한다. 이런 우리를 보며 아버지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는 말씀을 꺼내신다. 또 하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길 바라신다.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미래를 위해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곧 성인이 될 나에게 아버지는 남은 학창시절을 후회 없이 보내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 이 다음에 손주들이 생기면 다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하셨다. 가볍지만 묵직한 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위해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이 걸었던 모든 걸 벗어 주시는 아버지를 위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족만 위하며 사신 아버지, 이제 우리 남매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고 있으니 이제 아버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셨으면 해요.”



2021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1.1.28. ~ 3.3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3	고문	최덕열	PT. SHINTA WOOSUNG	5,000	2020
4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5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0	2020-2021
6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7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8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9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0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1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2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13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14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15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16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17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18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19	이사	길병완	PT. DAEYONG DUNIA SUBUR	1,000	
20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21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2020
22	이사	김인기	PT. INDOCORE PERKASA	1,000	
23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24	이사	김종화	PT. ART MOLD INDONESIA	1,000	
25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26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27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28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29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00	2020-2021
30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31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000	
32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33	이사	이강현	PT.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1,000	2020
34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35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36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2020
37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2020
38	이사	정제의	PT. SINERGI SUKSES INDONESIA	1,000	2020
39		no name		1,000	

2021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1	이국청	300,000	
2	정민수	300,000	
3	김재정	300,000	
4	최상직	600,000	2021-2022
5	김성진	300,000	
6	송판원	300,000	2020
7	최석일	300,000	
8	김주형	1,000,000	
9	강희중	300,000	
10	고영철	300,000	
11	백형균	300,000	
12	최임선	300,000	
13	송광중	300,000	
14	이정휴	300,000	
15	최덕열	600,000	2020-2021
16	이준호	300,000	
17	이완호	300,000	
18	이주연	300,000	
19	이균진	300,000	
20	이소임	300,000	
21	김봉수	300,000	
22	안창섭	300,000	
23	장수봉	300,000	2020
24	최성현	300,000	
25	이순형	300,000	
26	김경우	300,000	
27	양석모	300,000	
28	최민	300,000	
29	최상직	1,400,000	기부금
30	박영곤	300,000	
31	김슬기	300,000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32	한미혜	300,000	
33	이은진	300,000	
34	김재구	300,000	
35	조용완	300,000	
36	홍석영	300,000	
37	채만용	300,000	
38	구종율	300,000	
39	황성현	300,000	
40	정연오	300,000	
41	정진주	300,000	
42	김노식	300,000	
43	임성국	300,000	
44	이경복	300,000	
45	권구학	300,000	
46	김주열	300,000	
47	박정은	300,000	
48	대구경북 자카르타 사무소	2,000,000	기부금
49	박해윤	300,000	
50	김병효	300,000	
51	강호성	600,000	2020-2021
52	김영율	300,000	
53	조용재	300,000	
54	김창근	300,000	
55	김대근	300,000	
56	김혜진	300,000	
57	최인실	300,000	
58	김일태	300,000	
59	이정규	600,000	2021-2022
60	조규철	300,000	
61	하재수	300,000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62	김요셉	300,000	
63	공상용	300,000	
64	엄정호	300,000	
65	김우진	300,000	
66	길병완	300,000	
67	김희중	300,000	
68	김호권	300,000	
69	김소웅	300,000	
70	no name	300,000	
71	유용선	300,000	
72	양시완	300,000	
73	김경곤	300,000	
74	정제의	300,000	2020
75	김영만	300,000	
76	석웅치	300,000	
77	박성대	300,000	
78	강선학	300,000	
79	서영률	300,000	
80	김종화	300,000	
81	박재현	300,000	
82	진상요	300,000	
83	송판원	300,000	
84	정용완	300,000	
85	오세명	300,000	
86	승범수	300,000	
87	양태화	300,000	
88	최성현	300,000	
89	이한주	300,000	2020
90	이완주	300,000	
91	이상일	300,000	
92	김인기	300,000	
93	노태진	300,000	

50개국 해외송금 핀테크
센트비를 만나보세요!

- 1 5분만에 실시간 한국송금
- 2 싱가포르·한국 정부 공인 서비스
- 3 수수료 100% 무료 이벤트!

지금 바로 네이버에 SENTBE를 검색해보세요!

해외송금 5분컷-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ماس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021) 2245 587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a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분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옥)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하)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JASMIN HAIR SALON

Darmawangsa Squire 1F Unit 146
Jakarta Selatan

예약문의 : 021 7280 0019
0811 956 250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골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다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94 433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깍뚝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채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카람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짜카람)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짜카람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C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0. 7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춘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0821-8166-6137]"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